



태권도 한마당 '94



빼어난 품새, 위력적인 격파경연

국내외 태권도 동호인 1576명 참가

'9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대한 태권도협회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태권도 한마당 '94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국내외 태권도 관계 인사 및 많은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3일간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태권도 종주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태권도 축제로 국내외 태권도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격파와 품새 경연을 펼쳤

는데 국내에서는 615개팀에서 1408명이 출전하였고 해외에서 12개국에서 168명 등 총 1576명이 참가했다.

태권도를 무도정신이 깃든 범국민적 생활체육으로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 92년도에 창설되어 품새의 절도있고 빼어난 아름다움과 격파의 무서운 위력을 함께 보여주며 태권도인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은 태권도 한마당은 올해 그 규모를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함으로써 태권도 한마당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알찬 프로그램으로 종주국의 위용을 떨쳤다.

특히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세계적인 문화인 우리의 태권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계 속에 활동하고 있는 한국 사범과 그 문학생들이 직접 경연에 출전하여 종주국의 태권도 동호인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이번 태권도 한마당 대회는 예년과 같이 품새 및 격파 경연



태권도 한마당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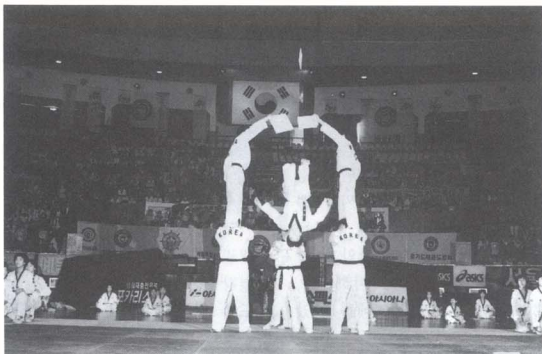
대회를 갖고 품새 부문 경연에서는 창작 품새 결승 진출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팀에게 올해의 품새상을 수여했다. 또한 격파부문에서는 부문별 우수상상자를 대상으로 손격파, 발격파, 묘기격파 등 3개부문 최강자를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우리의 전통무예로 세계화에 성공, 현재 140여개국에 3천여 만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가 지난 9월 파리 103차 IOC 총회에서 2천년 시드니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시점에서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국제대회로 펼쳐짐으로써 앞으로 세계인이 즐겨하는 태권도의 생활체육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식후 공개행사, 사물놀이 등 흥겹게 진행

11월 26일 오후 3시에 시작된 개회식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강원식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의 대회사,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의 축사, 지연태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환영사,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의 치사가 이어졌다.

식후 공개행사에는 성인과 어린이가 국가대표 시범단의 태권도



▲ 식후 공개행사에서 보여준 국가대표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시범, 장사의 사물놀이가 흥겹게 펼쳐졌고 특전사의 태권도 시범이 이어져 태권도의 위력을 보여주며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개회식 공개행사는 전통무예로서의 위상을 살리고 전통문화 가운데서 호흡하는 태권도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오후 4시 10분경 공개행사를 마치고 품새 및 격파 경연이 시작되었다.

일반품새 여자부엔 가정주부들 참가, 건강미 보여줘

첫날 경연은 현재 도장에서 수련하고 있는 일반 품새를 누가 절도있고 힘있게 잘하는지를 뽐낸 일반품새와 손날격파, 발격파, 종합격파, 멀리뛰어차기

격파 부문에 대한 1, 2차 예선전이 펼쳐졌다.

일반품새 소년부에는 58팀에서 393명이 출전해 기량을 뽐냈는데 이들 중 자세 및 품새의 정확성, 기술의 고난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1, 2차전을 통과하고 결승전에 진출한 팀은 19개팀이었다.

다음날 거행된 최종전에서 경기제일체육관은 모든 심판으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으며 영광의 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시흥매화체육관, 신산국민학교, 노원평화체육관, 의정부 세아체육관이 각각 올해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일반품새 청년부에는 9개팀이 출전, 1차전서 4개팀이 2차전에



태권도 한마당 '94

진출, 이들중 1개팀이 탈락하고 서울경찰청, 체육선교신학교, 용인대 등 3개팀이 우수상을 획득했다.

일반품새 여자부는 도산체육관에서 31명의 가정주부들이 평소에 수련한 태권도 솜씨를 뽐내며 건강미를 보여주어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고 광탄종교, 장안체육관, 이화여대, 경희대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북체육관, 올해의 품새상 수상

참가자들이 태권도 품새를 직접 창안해 발표한 창작 품새부문에는 소년부 23개팀, 청년부 17개팀, 장년부 3개팀, 여자부 4개팀이 출전하였다. 이들중 소년부에 참가한 성북체육관이 소년부 최고점수를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올해의 품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소년부 우수상은 청목체육관, 경복체육관, 신우국민학교, 명화체육관이 각각 차지하였다.

청년부에서는 전남 서면체육관, 지킴이회, 충남협회, 경희대, 세계태권도선교회가 수상.

장년부에는 서울체육관, 세계태권도선교회, 불광권민조기회,

여자부는 용인대, 할렐루야체육관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금산비룡도장, 태권체조 경연서 소년, 청년, 여자부 모두 우수상 수상

태권도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태권도 동작을 위주로 일반인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쉽게 태권도에 접근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된 태권체조 경연은 음악과 함께 진행되어 흥겨운 축제 한 마당과 같았다.

소년부에는 총 17팀이 참가했는데 이들중 1차경연을 통해 9개팀이 2차전에 진출하였고 이

들중 7개팀이 통과 결승에 올랐다. 이들중 안양부림국민학교를 비롯해 연무체육관, 경일체육관, 금산비룡도장, 화랑체육관이 우수상을 수상.

청년부는 용인대, 금산비룡도장, 서울경찰청, 산성체육관, 문경체육관, 여자부에서는 체육선교신학교, 금산비룡도장이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금산비룡도장은 소년부, 청년부, 여자부 3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일선 도장으로 꼽히게 되었으며 종합결과 부문에도 여자부의 윤수원이 참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품새



▲음악과 함께 진행되어 흥겨운 분위기를 보여준 태권체조



태권도 한마당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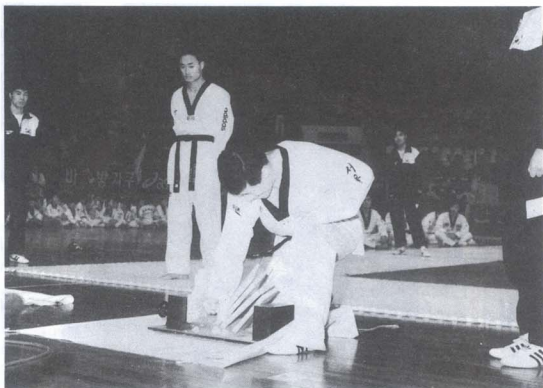
와 격과 부문 모두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격파경연에서 벽돌, 송판 갈며 태권도 위력 펼쳐

태권도인들 중 누구의 위력이 가장 센가를 가름하는 격파 경연대회에서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송판조각이 날리고 붉은 벽돌이 손날에 갈라지면서 태권도의 위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는 무대가 되었다.

손날로 붉은 벽돌을 깨는 손날격과 경연에는 청년부 15명, 장년부 7명 등 총 22명이 출전 2명을 제외한 20명이 1차전서 벽돌 1매를, 깨는 데 성공하며 위력을 과시했으나 2차전에서는 문영복(용인대), 김영우(경희대), 이재구(세계태권도선교회), 박병만(서울경찰청) 등 4명만이 2매의 벽돌을 깨는데 성공했다.

주먹격파 경연은 1차서 기와 12매, 2차서 15매를 격파하고 최종서 16매를 격파했는데 청년부 이무송(원주대성체육관), 김진만(백호체육관), 노광엽(경희대), 강창현(경희대), 배형찬(서울경찰청)이, 장년부에서는 채수호(부평동아체육관), 최인수(광주 북성중), 김기용(성광체육관), 김희삼(수원태권도선교회), 이필호(성산체육관)이 위력을 과시하며 우수



▲ 손격파를 성공하고 있는 모습

상 수상.

발격과 청년부 경연은 1차 예선서 2cm 두께의 송판 3장을 깨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청년부의 75명의 출전자 중 38명이 성공하며 2차에 진출, 이들 중 4장의 송판을 깨는데 성공한 경연자는 26명, 결승전은 5장의 송판을 깨는 것으로 위력을 가름했는데 이덕희(용인대), 전정진(문경체육관), 박재천(북아현체육관), 김 훈/현수남(체육선교신학교), 최창익(해동체육관), 김상배(서울경찰청), 김재수/이선우(경희대)가 송판을 날리는데 성공하며 우수상 차지.

장년부 경연에는 10명이 출전, 이들 중 전기복(교산도장), 강신철(수원남창체육관), 김정찬(지성 경희체육관) 3명이 1, 2, 3차전서 송판을 깨는데 성공하며 태권도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강신철씨는 최강자 선발전에서 올해의 발격과 부문 격파왕으로 등극했다.

멀리뛰어차기는 장애물을 통과하여 송판을 격파하는 것으로 소년부는 1차 예선서 250cm의 장애물을 통과하여 1cm의 송판 격파, 2차 270cm, 최종서 280cm의 장애물을 통과하여 격



태권도 한마당 '94



▲ 높이뛰어차기에서 송판을 깨는데 성공하고 있다.

파에 성공, 우수상을 수상한 사람은 현철우(충무체육관), 오종민(북아현체육관), 최광수(명화체육관), 신승규/한재호(동문체육관), 박인철(송일체육관), 김동수/김동진(무궁화체육관)

청년부는 1차 300cm의 장애물을 통과하여 송판을 격파하고 2차 350cm, 3차 370cm 장애물 통과하며 2cm의 송판을 격파한 사람은 박상재(한일체육관), 송희탁(대구한일체육관), 이근천(성산체육관), 홍석표/신경식/손

주홍(경희대), 김용귀(세계태권도선교회).

높이 뛰어차기는 소년부가 1차서 200cm 높이의 송판을 격파, 2차는 210cm, 3차는 230cm로 높이가 올라갔는데 이를 격파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김세움(명화체육관), 장운순(신흥체육관), 임민석(신한국체육관), 임재호(광탄중), 하상우(장안체육관).

청년부는 1차 250cm, 2차 260cm, 3차 270cm 높이에서 2cm의 송판을 격파하는데 성공

한 사람은 문선태(문경체육관), 최성훈(경희체육관), 유은수(용인대), 정재현(경희대).

종합격파는 고난도 기술로 송판, 벽돌, 사과 등 격파물을 깨는데 성공하며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용인대의 정윤희는 묘기격파왕으로 선발되었다.

소년부에는 명화체육관의 배선옥과 정형진, 광탄중의 이용웅, 신한국민학교의 정성호, 할렐루야체육관의 최삼열, 청년부



태권도 한마당 '94

에는 용인대의 김주섭, 박준성, 경희대의 길상배, 세계태권도선교회의 최규완, 정스태권도장의 정재환, 여자부는 영광체육관의 김명희, 체육선교신학교의 전인애, 용인대의 정윤희, 경희대의 김상순, 금산비룡도장의 윤수원이 각각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해외선수단, 12개국에서 168명이 참가해 경연

'9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그동안 국내 태

권도 동호인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펼친 것을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국제 규모대회로 개최되어 국내외 태권도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해외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중화대북, 독일, 프랑스,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우즈베크스탄 등 12개국에서 168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해외선수단은 일반품새 부문에 10개팀이 출전, 이들중 독일, 중화대북, 미국팀이 우수상 수

상, 품새 부문에는 5팀이 출전, 호주, 일본, 중화대북이 우수상 수상, 태권체조 부문에는 중화대북에서 중후한 음악과 태권도의 무도적이며 건강체육적인 면을 강하고 부드럽게 조화시키는 품새를 펼치며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손날격과 부문의 최강자는 싱가포르의 Koh Chee Liang, 주먹격과 최강자는 중국의 전철하, 발격과 부문은 일본의 장명삼, 우즈베크스탄의 Kim Alexqndr, 호주의 David Crossley 3명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높이뛰어차기 부문에서는 프랑스의 Philippe Le Borgne, 호주의 Alex Farcas가 우수상 수상.

종합격과 부문에는 프랑스의 Guy Friess, 그밖에 중화대북에서 소년부 3명, 청년부 4명, 여자부 1명 등 총 8명이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제대회로 도약한 이번 태권도 한마당은 해외 동포 및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상품으로써 기틀을 잡았다. 해외선수단은 이번 경연대회에서 품새나 격파 모든 면에서 태권도 종주국의 태권도인들보다 빠지지 않는 기량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태권도인들을 놀라게 했다. **태권**



▲ 해외참가자들은 높은 기량을 보여 주어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스포츠 문화 창달에 기여”

제 1 회 태권도 사진 전시회 개최

대한태권도협회는 일간스포츠와 공동주최로 제 1 회 태권도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태권도 한마당 경연대회가 펼쳐진 잠실 학생체육관을 찾은 많은 관중들에게 태권도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스포츠 문화 창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태권도의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고 생활체육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사진공모전을 실시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 22점을 비롯해 공동주최사인 일간스포츠 사진부에서 제공한 태권도 사진 등 총 60여점이 전시되었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 태권도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진 및 태권도의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사진들이 망라되었다.

따라서 태권도의 유구한 역사와 발자취 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스포츠적 가치와 아울러 무도로서의 진면목이 잘 조화되는

국제적인 스포츠이자 생활체육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사진 공모전에는 총 106점이 출품되어 이중 박태호씨의 「태권도 시범」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사진 공모전 입상자들에게 대한 시상식은 11월 26일 오후 3시 태권도 한마당 개최식 때 거행되어 대상을 수상한 박태호씨에게는 문화체육부장관상과 뉴욕왕복항공권 2매가 부상으로 주어지는 등 입상자 전원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태권도 사진 전시회는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태권도의 힘과 기와 미를 보여줌으로써 태권도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태권도 문화의 세계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작품 및 작가

- ▲ 대상 : 태권도 시범(박태호)
- ▲ 금상 : 찍어차기(서수홍)
- ▲ 은상 : 만리장성의 안과 밖(강원규)
끝없는 소망-뛰어 옆차기(강신철)

- ▲ 동상 : 뒤차기(김태호)
격파표기(오재구)
88서울올림픽개회식 공개행사-태권도 시범(김민제)
- ▲佳作 : 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채승우)
격파시범(채승우)
단군의 아들 딸 백두산에서(강원규)
더 높이, 더 강하게(김민제)
쉴에서(김영기)
- ▲ 입선 : 사범님의 시범(정금수)
정진(김석련)
반격(김태호)
한방먹여(채승우)
대결(박병욱)
회전격파(오재구)
천안문광장에 울리는 태권도 기합소리(강원규)
오른팔 돌려차기(김민제)
최상의 자세-훈신의 힘을 다해 옆차기 기술(강신철)
뛰어 옆차기(김인성)

『태권도 시범』으로 제 1 회 태권도 사진 공모전 대상 차지 — 박태호씨



▲ 대상을 받은 박태호씨의 「태권도 시범」

제 1 회 태권도 사진 공모전서 『태권도 시범』으로 문화체육부장관상과 뉴욕왕복항공권 2매를 부상으로 받는 등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박태호씨(44세)는 현재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이번엔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지난 4월 22일과

23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서울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 직후 공개행사로 펼쳐진 국가대표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을 카메라에 잡은 것이라고 한다.

“태권도 국제행사가 개최된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관중석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경기장내로 내려오니 까 제지를 당했습니다. 운영요원들에게 사정해서 억지로 몇컷를 찍었는데 몇달 뒤 태권도 사진공모전 기사를 보고 그 때 찍은 사진들을 출품했습니다.”

한양대 경제학과 재학시절에 취미활동으로 태권도를 수련하여 초단의 태권도인이기도 한 박태호씨는 이렇게 우연찮게 찍은 태권도 사진이 대상을 차지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다며 앞으로 태권도 사진을 통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태권도경기 사진은 무엇보다도 순간포착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품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그는 그동안 태권도 사진외에도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위주로한 인물사진과 자연의 모습 등을 찍어왔는데 '93년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엑스포 사진공모전에서 입선을 차지했으며 정도 600주년 기념 촬영대회 입선, '94년도에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관광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한 바 있다. 그밖에도 각종 사진공모전에서 20여회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박태호씨는 현재 한일 사진비디오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태권**

“전 국민적 관심 고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념 KBS배 국제태권도 대회



▲ 김영삼대통령은 개회식에서 태권도시범을 보인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이들을 격려했다.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념 KBS배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가 12월 10일과 1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KBS와 세계태권도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103차 IOC총회에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

된 것으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서의 태권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통무예로 세계화에 성공한 태권도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각 대륙별로 아시아는 한국, 일본, 필리핀, 오세아니아주는 호주, 유럽은 스페인, 러시아, 헝가리, 판암은 미국, 멕시코, 중동 아프리카는

쿠웨이트,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태권도 강호 12개국이 참가했다.

김영삼 대통령 참관, 세계화에 성공한 태권도 격려

10일 오후 3시에 거행된 개회식에서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해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 홍두표 KBS사장, 김운용

IOC위원 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해외에서는 네덜란드의 안톤 기싱크, 에콰도르의 오거스틴 아로유, 대만의 청크오유, 몽골의 샤그다리아브 매그반 등 4개국 IOC위원을 비롯해 세계태권도연맹 임원, 각국 태권도협회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장충체육관의 관중석은 태권도 대회 사상 가장 많은 관람자가 뺄뺄히 자리를 메워 태권도에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으로 보여주었다.

개회식은 KBS팍스오케스트라의 행진곡에 맞춰 국제심판들이 세계태권도연맹기를 앞세우고 입장했고 뒤를 이어 참가국 임원 및 선수가 국기를 앞세우고 알파벳 순으로 입장했다.

이어 고향의 봄으로 연주가 바뀌고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의 입장을 알리는 이창호, 장은영 아나운서의 소개가 있자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뜨거운 박수로 이들을 환영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전통무예로 세계화에 성공한 태권도를 축하하며 전 세계인이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발전하도록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권도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시사했다.

이어 한국의 조향미선수가 대표선수 선서를 통해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언했고 심판 대표선서로 스페인의 마누엘 팔메네로가 한국말로 공명정대



▲대표선수 선서를 하고 있는 조향미 선수

한 심판을 불것을 선사해 관중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식후공개행사는 KBS 합창단의 축하 노래에 이어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국기원 성인시범단의 격파 시범, 서울경찰청의 호신술 시범으로 이어지며 태권도의 진수를 펼쳐 보였다.

이어 태권도 유단자인 탤런트 김혜수(3단), 이동준(5단)과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2명이 태권도복과 쏘다발을 김영삼 대통령 내외에게 증정하자 김영삼대통령은 즉석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띠를 매어 보여 태권도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내외는 개회식을 마치자 경기장으로 내려와 태권도 시범을 보인 성인 및 어린이 시범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이들을 격려하고 퇴장했다.

이어 남녀 4체급씩 경기가 진행되었다.

첫날 4체급 중 한국 금 2, 이집트, 대만 각각 금메달을 따내며 실력발휘

한국은 10일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첫날 경기에서 남자 +80kg급의 김광수(한체대)와 여자 -67kg급의 조향미(경희대)가 각각 이탈리아와 러시아 선수를 꺾고 우승하는 등 남녀 각 2체급씩 모두 4체급에서 금 2, 은 1, 동 1개를 획득했다.

전국가대표 김광수는 4강전에서 이집트의 예히야가말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해 이탈리아의 로마노 마시밀리아네에 우세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광수는 결승에서 한때 2:3으로 뒤졌으나 뒤돌려차기를 상대턱에 적중시켜 4:4 무승부를 이룬 뒤 힘겹게 우세승을 거두었다. 가볍게 몸을 풀며 금메달을 향한 마음의 각오를 다졌다.

웰터급 정광채 선수의 경기는 12시 조금 넘어서 시작되었다.

다.

이어 벌어진 여자 -67kg급의 결승에서도 한국은 '94 아시아선수권 동메달리스트인 조항미가 러시아의 샤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7:1로 판정승 거두고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벌어진 여자부 -49kg급에서는 고양종고의 박현기가 '94월드컵 금메달리스트인 대만의 첸시신에 1:3으로 판정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또 남자 -68kg급에 출전한 김인동(풍생고)은 예선서 이집트의 마흐무드 살라비에게 2:3으로 판정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살라비는 결승서 필리핀의 라멜리코 아브라티크를 4:2 판정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금4, 은1, 동1로 남녀 종합 우승

11일 마지막날 경기에서 한국은 4체급 경기 중 2체급에 출전해 여자 -57kg급에 윤명숙(상명여대)과 남자 -80kg급에 장종오(용인대)가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이날 2개의 금메달 추가로 남자는 금2, 동1, 여자는 금2, 은1로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94 서울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윤명숙은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94 아시아선수권 2위인 필리핀의 넬리아 시를 맞아 뒷차기 등으로 득점을 올리며 일방적인 공격 끝에 3:0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냈다.

'93 월드컵 금메달리스트인



▲ 태권도 강호 12개국 대표선수가 출전, 열띤 시합을 펼쳤다.



▲ 4개국 IOC 위원들이 경기를 참관하고 시상을 했다.

장종오는 미국의 간판 스타인 잔 로페즈('92, '94 판암선수권 1위)를 맞아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막판 몸통공격과 돌려차기를 연이어 성공시켜 2:1 판정승을 거두었다.

또 이날 남자 -58kg급에서는 스페인의 가브리엘 페레스가 미국의 스티븐 리를 6:1 판정승으로 꺾고 우승했고, 여자 +67kg

급에서는 대만의 황샤오잉이 스페인의 올란다 아우나를 5:1 판정승으로 이기고 패권을 안았다.

한편 남자부 종합 2위는 이집트(금1, 동1), 3위는 스페인(금1, 동1)이 차지했다. 여자부는 대만(금2, 동1)이 2위, 러시아(은1, 동1)가 3위를 기록했다.

KBS배 국제 태권도 대회 개최식

大統領 致辭

전세계 태권도인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각국 선수단과 IOC 위원,
그리고 체육계 지도자 여러분!

국제 태권도 대회가 이곳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하며, 세계 각국에서 오신 여러분을 진
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세계 태권도를 대표하는 여러분이 태권도
의 발상지인 한국 땅에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
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권도는 지난 2000여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
생활스포츠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태권도를 통하여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력
을 길렀습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불굴의 용기와 한없는 너그움을 체득했습니
다.

태권도가 갖는 이러한 덕목이야말로 공존공영
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지구촌 가족」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인 여러분!

세계는 지금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교류와 협력
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도래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한 세계스포츠계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믿습
니다.

한국은 서울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활동
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습니
다.

나와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
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역시 한국과 세계와의 가교역할 뿐만 아
니라, 세계 각국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왔

습니다.

지금 전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5천만명이 태권
도를 수련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2000년에 열리는 시드
니 올림픽에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
습니다.

이제 태권도를 전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
져 있습니다.

태권도인의 진취적인 기상과 넓은 포용력으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태권도를 통하여 평화로운 세계, 더불어 잘 사
는 세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화합과 진진이라는 올림픽
이념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그동안 태권도 발전에 기
여해온 세계의 모든 태권도인과 특히 각별한 관심
과 이해를 보여준 IOC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
립니다.

앞으로도 태권도가 더욱 발전하여 온 인류의 화
합과 번영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

전세계 태권도인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이
번 대회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의 본향인 이곳 한국에서의 체류가 즐겁
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2월 10일

대통령 김 영 삼

4체급 모두 석권하며 종합 2위 달성에 기여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는 선수촌에서 약 50km 떨어진 AKI WARD CENTER에서 10월 8~9일 양 일간에 걸쳐 총 2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시합을 대비해서 '93년 4월 선수촌에 입촌해 훈련해 오던 중 '93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94 필리핀 아사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1, 2위 통합전을 벌인 끝에 최종 엔트리 4명과 파트너 4명('94 월드컵 대표) 총 8명이 이번 대회에서 중중국의 위상과 면모를 보이기 위해 고된 훈련과 정신 훈련을 병행해 왔다.

이번 대회는 '86 아시안게임 이후 두번째로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된 데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일본과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남다른 각오와 사명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대회는 일본이 가라데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고 11개의 금메달을 석권하겠다고 하기에 우리로서는 더욱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태권도에 대해 잘 모르는 관계자들은 태권도는 시

합에 출전하면 무조건 다 우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선수단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으나 최선을 다해 4체급 모두 우승하겠다는 필승의 각오로 일본 현지로 출발했다.

10월 5일 13시 10분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니 오후 5시가 되었다. 우선 여장을 풀고 식사를 한후 저녁 7시 부터 야간운동에 들어갔다. 우리가 도착해서 보니 일본은 가라데를 앞세워 금메달 경쟁에서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냥 설 수가 없었다. 조깅과 스트레칭, 타켓발차기, 스텝겨루기를 하며 마무리에 들어갔다. 그후, 이틀동안 현지에서 제공한 보조경기장에서 각 나라의 시선을 모은 채 다양한 기술과 내용을 보이며 기선제압과 동시에 내일의 경기를 다짐 했다.

(10월 8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이날을 위해 하루에 3타임의 훈련과 시합을 앞두고 야간훈련까지 하면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

첫날은 핀, 플라이, 밴텀, 페더 4체급 경기가 이루어진다. 선

수준에서 시합장까지 거리가 먼 관개로, 체계시간이 예정보다 2시간 늦추어진 9~10시 까지 체계를 했다. 우리는 이날 플라이, 페더 두 체급만 출전하기에 두 선수 모두 체계에 통과한 후 시합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는 편, 플라이 경기가 먼저 진행된 후 오후 늦게 밴텀, 페더 경기로 이어졌다. 우리가 시합하는 아끼워드 체육관은 관중 3~4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체육관으로서 이번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아침부터 나와서 표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우리 교민들과 일본인들을 볼 수 있었다.

게임은 12시 부터 시작되었는데, 교민들과 많은 관중들이 들어와 한국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하여 주었다. 우리 한국의 첫번째 출전 선수인 플라이급의 진승태 선수는 싱가포르 SIN-NATHURAL,S를 맞이하여 신장이 자기보다 10cm 정도 큰 선수를 주먹기인 빠른 스텝과 돌려차기, 뒷차기로 6:1 판정승을 거두고 예선을 통과 했다.

이날 게임은 진행의 미숙으로 예선이 끝난후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바로 경기에 임해야 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TAL-UMEWO,D 선수를 맞아 1회전에 빠른발 돌려차기, 들어찍기 공격으로 여유 있게 이끌어 나가며 시종일관 공격한 끝에 6:1 판정승을 거두고 4강에 진입했다. 4강전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 메달을 딴 네팔 SHAHI, Man Bahadur 선수를 맞이하여



▲ 문원재코치가 정관채선수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밀어차기와 뒷차기, 오른발 돌려차기로 공격 2회전 2분 10초 만에 RSC 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요르단 ZOA' M. 선수를 맞이하여 런너 들어찍기와 오른발 돌려차기로 강하게 공격한 끝에 2회전 1분 19초 만에 역시 RSC 승으로 우승을 함으로써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 주었다.

두번째 경기인 페더급의 김현용 선수의 첫 경기는 부전승인 관계로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되었다. 상대는 쿠웨이트 FAR-AJ, Khaled 선수를 맞이하여 자기의 주특기인 빠른발과 뒷차기로서 가볍게 8:1 판정승을 거두고 순조로운 출발과 함께 4강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이번 대회에 처녀 출전인 우즈베키스탄 KHAN, EVGENI 선수를 맞아 종주국 다운 기량을 보이

며 다양한 기술로 7:0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필리핀 VARGAS,R. 선수를 빠른발과 받아차기, 뒷차기로서 국제대회에서 보기 드문 12:1 이라는 고득점으로 우승, 시합을 지켜본 김운용 IOC 위원과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종수 부회장 등 모든 태권도 관계자와 관중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아들의 시합을 보기 위해 현지까지 응원을 온 노부모에게 금메달을 안겨 부모님을 기쁘게 하였다.

한국 선수단은 이로써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첫날 경기를 마쳤다.

(10월 9일)

이틀째 경기가 시작 되었다.

우리 선수는 웰터와 헤비급 경기에 출전했다. 체계에 통과한 선수들은 전날 우승한 선수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첫 상대는 전날 밴텀급에서 금메달을 따내 사기가 올라 있는 베트남의 NGUYEN,DANG 선수를 맞이하여 자기의 주특기인 연결 동작에 파워 있는 돌려차기와 내려차기로 6:1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정광채 선수는 예선전서 발등을 다쳐 걱정을 했으나 사망감과 근성에 불타 있어 강한 정신력을 보여 주었다. 준결승에서는 말레이시아 RAI,J. 선수를 연결동작과 뒷차기로 2회 1분 30초 만에 RSC 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이란 SAA-DATI,E. 선수를 맞아 1회전에는 발등 부상으로 호각세를 이루었으나 차분한 경기진행으로 빠른발과 오른발 돌려차기로 10:3으로 판정승, 세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서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출전선수인 헤비급의 김제경 선수는 국내의 헤비급 경기에서 무패의 기록과 '92 올림픽, '93 세계선수권, '94 아시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하여 이번대회에 우승하면 그랜드슬램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위의 시선을 받으며 경기에 들어갔다.

첫 경기는 부전승으로 오르고 준결승에서 대만의 WU,PAO-YI 선수를 빠른발과 뒷차기 공격과 화려한 점프 뒷차기, 뒤후리기로 관중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7:1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대만 선수는 94년 1월



▲ 국제대회를 모두 석권한 김제경선수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김제경선수가 발 부상으로 고전을 했던 선수였으나 이번 경기에서 그대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결승전에서는 이란의 ZAR-AKSH,F. 선수를 맞이하여 1회전에 1:1로 팽팽한 경기를 이끌어 갔다. 김제경선수는 준결승전에서 대만 선수와 부딪쳐 무릎이 심하게 부어 오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2회전에 들어 오는 상대를 받아 차다가 다친 부위를 또 부딪쳐서 매트에 뒹굴었다. 정말 아찔하고 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나 간단히 치료한 후 게임에 임해 상당히 변칙적인 이란 선수를 돌려차기와 뒷차기로 각각 1점씩 더 얻어 3:1 판정승으로 우승하여 자랑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한국선수단은 4체급 전원 금메달을 목에 걸어 중주국의 위용을 떨치며 국민의 기대에 보답했다.

이번 시합에서 두드러진 점은 대회조직위에서 각나라 대표선수 출전을 4체급으로 제한 함으로써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피하기 위해 체급을 조정 출전한 모습이 보이거나 나라마다 복병이 있어 마음을 놓지 못했다.

특히, 베트남과 중량급에서 이란, 요르단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중동 선수들은 변칙기술이 능해 정석게임을 하는 우리선수들을 당황하게 했다.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 선수들이 이번 시합을 대비해서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한 모습이 보였으며 한국이 출전한 4체급을 제외한 나머지 4체급에서 금메달을 향한 나라별 각축전이 뜨거웠다.

대회 결과 여러나라에서 골로루 메달을 획득했고 우리 선수단은 4체급 모두 석권함으로써 한국의 종합 2위 달성에 기여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시합에 자만하지 말고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월등한 기량훈련과 중동선수들의 변칙기술에 대한 대응 훈련, 유럽선수들의 우세한 체력과 신장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한진**

영광의 얼굴들

코치 - 문원재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 한국 대표팀 코치로 4체급의 선수를 지도하여 4체급 모두 석권함으로써 한국의 종합 2위 달성에 기여하며 국위를 선양했다.

동성고, 한국체육대학교 건국대 대학원을 졸업한 문원재코치는 1992년도에 제2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 대표팀 코치로 파견되어 종합 우승을 달성하며 지도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진승태(플라이급 금메달)



진승태(21)는 1m68의 단신에 왜소한 체구지만 투지가 뛰어난 파이터. 순발력이 뛰어나고 들어내려차기 등 큰 기술도 무리없이 구사할 정도로 공격성과 민첩성이 좋다.

국내에서는 편급선수로 93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와 94월드컵대회서 편급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최경량급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94년 4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상했다.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대표선발전서 탈락한을 이번대회서 플라이급으로 한체급 올려 시원스레 풀었다.

전주태생으로 5살때인 지난 78년부터 도장을 찾았고 현재 4단. 진헌부씨의 2남1녀중 장남. 경남체육고 졸업, 현재 한국체육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김현용(페더급 금메달)



김현용(22)은 원래 밴텀급의 간판스타였으나 대회규정상 페더급으로 올려 출전, 당당히 금메달을 딸 만큼 천부적인 재질을 타고났다.

올해 국가대표선발전 밴텀급서 1위로 태극마크를 따낸 아시아선수권대회 밴텀급서 우승, 과거 80년대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한 김종기 이후 최고의 밴텀급선수로 각광받고 있다.

기술이 다양하지만 특히 상대의 약점을 놓치지 않는 역습기술 뒤차기가 주무기다.

6살때 동네도장을 찾은 것이 인연이돼 선수의 길을 걷게 됐고 현재 3단. 김수만씨와 용원철씨의 2남1녀중 막내. 서울체고를 졸업했고 현재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영광의 얼굴들

정광채(웰터급 금메달)



태권도에서 3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웰터급의 정광채는 '이중차기'가 일품.

강동국 2년째 태권도에 입문, 한영중-관악고를 거쳐 한체대 3년째인 작년 말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90년과 92년 대통령배 대회를 잇따라 석권, 두각을 나타낸 정광채는 94년 아시안선수권대회 라이트급 우승 이후 국제대회 2회만에 아시아정상에 우뚝 섰다.

72년 서울태생으로 독실한 불교신자이며 4단. 현재 한국체육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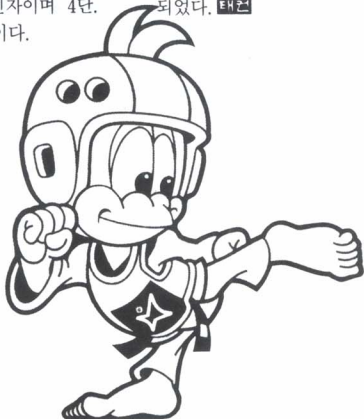
김제경(헤비급 금메달)



태권도 '4체급 싸슬이'의 대미를 장식한 김제경은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팀의 간판.

울산중앙중-울산공고를 거쳐 동아대 3년째인 91년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으며 92마르셀로나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93), 아시안선수권대회 2연패(92, 94) 등 국제대회서 3년째 무패를 기록하며 태권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우승과 함께 전역한 김제경은 소속팀이었던 상무 태권도부의 코치로 임명되었다. **태권**



위엄과 멋, 절도 있는 군인들의 태권도 대회

제 6 회 국제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기간 : 1994.9.2~9.15(14일간)
장소 : 페루 리마 육군사관학교
참가국 : 8개국
참가인원 : 선수 76명, 임원 50명, 총 126명

(한국팀 참가 선수단 명단)

- ▲ 단장 : 정석호(국방부)
- ▲ 감독 : 황영갑(국군체육부대 태권도감독)
- ▲ 주무 : 정귀섭(국군체육부대 본근대장)
- ▲ 국제심판 : 김길례
(1군 사령관)
강석한
장명수
- ▲ 남자선수
 - 편급 : 정영길
(국군체육부대 /3위)
 - 플라이급 : 지재기
(국군체육부대 /1위)
 - 밴텀급 : 신상준
(국군체육부대 /1위)
 - 페더급 : 장대진
(국군체육부대 /1위)
 - 라이트급 : 양춘열
(36사 중위 /3위)
 - 웰터급 : 조재춘
(국군체육부대 /1위)

- 미들급 : 정주석
(국군체육부대 /1위)
- 헤비급 : 박종범
(국군체육부대 /2위)
- ▲ 여자선수
 - 밴텀급 : 김정아
(특전사 /2위)
 - 페더급 : 정은주
(특전사 /예선탈락)
 - 라이트급 : 전은미
(여군학교 /3위)
 - 웰터급 : 이은정
(특전사 /예선탈락)

세계 군인들의 제전 중에 하 나인 제6회 국제 군인 선수권 대회가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리마에 도착한 우리는 페루 대표팀 감독 이기영사범과 여러 교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와 선수단 숙소인 해군사관학교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페루는 한반도의 6배나 되는 넓은 면적의 땅을 갖고 있으며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칠레 옆에 위치한 페루는 남미쪽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음으로 부강한 나라지만

우리나라 70년대 모습을 연상케 하는 도시였다.

6일날 저녁에는 개막식이 있어 각국 선수단 전원이 군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개막식이 열리는 육군사관학교 체육관으로 향하였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나라마다 특색있는 군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에서 군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상과 군복에서 풍기는 위엄과 멋, 그리고 절도에서 나오는 늠름함을 엿볼 수 있었다. 개막식은 각국 선수단이 입장하면서 시작되었고, 국방부장관을 비롯, 참모총장과 사관학교장 등 유명인사들이 초청되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관중석에는 사관학교 생도들과 페루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개회식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워 주었다.

개회식은 대회장의 인사말과 선수선서를 끝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리며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는 한국에서 강석한, 장명수 두 국제심판이 파견되어 깨끗한 심판운영과 짜임새있는 경기 진행으로 대회의 질을 한층더 높여 주었

제6회 국제 군인선수권대회

으며, 외국심판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 첫날에는 핀급에 정영길 선수와 밴텀급 선상준 선수가 출전하였고 여자부에는 밴텀급 김정아 선수가 출전하여 경량급다운 스피드있는 몸놀림과 강력한 발차기로 외국선수들을 압도해 선상준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정영길 선수와 김정아 선수는 아깝게 동메달과 은메달에 그쳤다.

대회 둘째날에는 플라이급에 지재기 선수와 페더급에 장대진 선수가 출전하여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장대진 선수는 파워있는 발차기로 준결승에서 미국 선수를 뒷차기 기술로 KO시켜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고 결승에서는 기권승을 거두어 쉽게 우승을 차지하였다. 여자부 페더급에 출전한 정은주 선수는 경험 미숙으로 게임을 풀지못해 예선탈락하는 불운을 맞았다. 대회 세째날인 9일은 주최국인 페루 조직위원회에서 각국 선수 임원들과 관광 및 쇼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네째날에는 미들급의 정주석 선수와 라이트급의 양춘열 선수가 출전하여 다양한 발차기와 파워있는 공격으로 정주석 선수는 금메달을 획득 하였으나 양춘열 선수는 컨디션 난조로 동메달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여자부의 전은미 선수는 경기에 분전하였으나 준결승전에서 페루선수에게 패하여 동메



▲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 대표선수단

달을 획득하였다. 대회 마지막날인 11일에는 웰터급의 조재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헤비급의 박종범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여자부 웰터급에 이은정 선수는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다.

이로써 모든 경기를 마치고 폐회식을 하는 순간 관중들은 경기에서의 뜨거운 열기를 못내 아쉬워했고 태권도라는 스포츠에 매료되어 폐회식이 끝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아쉬움을 보였다.

경기 결과는 남자 종합우승에 금5, 은1, 동2를 획득한 한국으로 돌아갔고, 2위는 금1, 은2를 획득한 페루, 3위는 금1을 획득한 사우디가 차지했다.

이로써 폐회식을 끝으로 제6회 국제 군인 선수권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한번

태권도 중추국의 위상을 각국 선수들에게 확고히 심어주었다.

또한 다른 국제 대회와는 달리 각국의 군인들만이 출전하기 때문에 패기있는 경기, 절도있는 행동과 깨끗한 매너로 관중들을 매료시키는 대회이기도 했다.

이제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된 국제적인 스포츠로 발돋움 하였다. 외국 선수들의 기량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한국 선수들도 새로운 기술과 특점력있는 발차기를 구사하여 여기에 대응하여야만 중추국으로서의 우리 한국 태권도를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 대표팀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영 사범과 조기성 대사 그리고 교민들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태권**

정광채, 조항미 남녀 최우수선수상 수상

'94년도 전국 남녀 우수선수선발대회

('94. 11. 15 ~ 17, 국기원)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전적이 있는 남녀 선수들이 참가해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전국 우수선수선발대회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기원에서 3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입상자들은 '95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 대회에 진출하게 되며 이중 남자 페더, 웰터, 헤비급, 여자 플라이, 페더, 웰터급 우승자는 올림픽 채택 기념 KBS배 국제태권도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는 한체대가 핀급의 지진성, 뱅텀급의 조진호, 라이트급 정광채, 헤비급 김광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막강한 저력을 발휘했고 여자부는 경희대가 웰터급의 조항미,



여자 체급별
우승자

미들급 박은선, 헤비급 정명숙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94 국가대표선수로 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웰터급에 출전, 금메달을 따낸바 있는 정광채는 이번 대회에 라이트급 우승을 차지하며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여자

부는 웰터급 금메달을 따낸 조항미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남녀 체급별 우승자)

- 핀 급 : 지진성(한체대)
- 양소희(한체대)
- 플라이급 : 최용훈(동아대)
- 박현기(고양종고)
- 뱅 텀 급 : 조진호(한체대)
- 오은하(고양종고)
- 페 더 급 : 김인동(풍생고)
- 윤명숙(상명여대)
- 라이트급 : 정광채(한체대)
- 강해은(경성여실고)
- 웰 터 급 : 장종오(용인대)
- 조항미(경희대)
- 미 들 급 : 박종범(상 무)
- 박은선(경희대)
- 헤 비 급 : 김광수(한체대)
- 정명숙(경희대)



남자 체급별 우승자

서울시 대표팀 종합우승

제75회 전국체육대회

(’94. 10.8.~11.1, 대전 다목적체육관)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지난 10월.

대전 한밭벌에서 개최된 제75회 전국체육대회는 태권도의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이라는 자축 분위기와 함께 15개 시도지부와 재미, 재호주, 재일, 재브라질, 재캐나다 등 5개 해외지부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루어졌다.

그러나 올림픽채택이라는 국민적 호응과는 별개로 코트 주변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도간의 과열경쟁이 여전해,

경기장을 찾은 마스크관계자들로부터 「역시 태권도!」라는 탄식을 발하게 했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125명, 대학부 121명, 일반부 126명, 여자부 106명 등 총 478명이 출전해 시도의 명예를 걸고 뜨거운 각축전을 펼쳤다.

대회 결과 남자 3개부에서 단골우승팀인 서울시선수단이 금 8, 은 2, 동 2를 따내며 종합점수 2,204점으로 2위인 홈팀 대전시선수단(금 3, 은 3, 동 7, 042점)을 162점차로 따돌리고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시범종목으로 두번째 개최된 여자부 종목에서는 전남선수단(금3, 동1)과 서울시선수단(금2, 은1, 동2)이 분전하며 정식종목이 되는 '95년을 기대케 하였다. **태권**

(종합성적)

▲ 남자부

순위	시도명	금	은	동	점수
1	서울	8	2	2	2,204
2	대전	3	3	7	2,042
3	전남	2	4	4	1,594
4	충남	1	3	3	1,170
5	인천	2	1	4	1,113
6	부산	3	1	2	1,077
7	대구	1	1	5	1,053
8	강원	1	1	3	965
9	충북	0	1	5	828
10	광주	1	1	2	799
11	전북	0	2	3	737
12	경남	1	1	2	695
13	경기	1	2	1	666
14	제주	0	1	3	565
15	경북	0	0	2	332

▲ 여자부(시범종목)

시도	금	은	동
서울	2	1	2
부산		1	2
대구			
인천	1	2	2
광주			2
대전	1	1	
경기		2	
강원	1	1	3
충북			
충남			1
전북			2
전남	3		1
경북			
경남			
제주			

충북 충주시 연수체육관

“엄마와 아들이 함께 심사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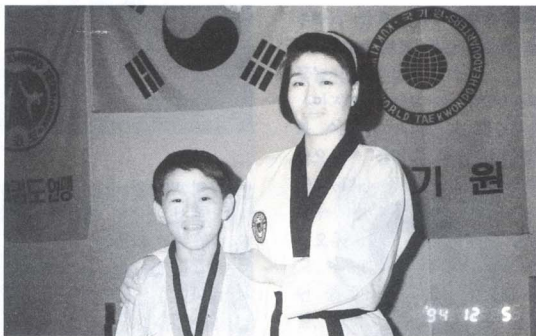
지난 11월 27일(일) 충청북도 북부지역 4/4분기 승품 및 승단심사가 충주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다.

그때 엄마와 아들이 함께 심사에 응시를 하여 심사관이나 많은 응심자들로 부터 주목을 받았다.

화제의 인물은 충주 오석국민학교 3학년인 권선민(9세)군과 그의 어머니 전용숙씨(33세)인데, 권군의 아버지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공군 3515부대 항전대 통제실장(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는 화목한 군인가족으로 알려졌다.

권군의 엄마 전용숙씨는 운동에 취미를 갖고 평소 테니스, 수영을 오랫동안 익혀 기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을 예의바르고 튼튼하게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길러주어야겠다는 마음에서 남자로서 가장 적합한 ‘태권도’를 수련시키기로 결심하고 함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92년 10월에 권군과 함께 충주시 연수 체육관에 입관하여 그동안 남달리 꾸준히 태권도



▲ 아들의 교육을 위해 엄마가 함께 태권도를 수련했다. 아들 권선민과 엄마 전용숙씨.

수련을 연마해오던 그들은 이번 심사에서 권군은 2품, 엄마는 2단 심사에 응시하게 된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학부모가 한두 명의 자녀만을 두고 과보호 속에 오직 내 자식만을 생각하고 주로 학업성적에만 치중하여 학교 공부후에도 과외로 몇 군데씩 학원을 보내어 어릴때부터 지나친 경쟁심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조장시켜 순진하게, 건강하게 자라야할 어린이들이 학년이 올라 갈수록 나약해지고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권군의 어머니는 어릴적에 성격형성이 이루어짐을 깨닫

고, 공부하는 차츰 올라가면서 스스로 깨달아 자신이 노력하면 되고 그러한 밑바탕이 되는 강한 정신력, 튼튼한 체력등을 길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녀교육을 위해 몸소 아들과 함께 도복을 입고 체육관에서 체력과 정신력을 다져 남들의 귀감이 되었다.

네살짜리 막내 선풍이도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태권도를 수련토록 하겠다는 전용숙씨는 이날 심사를 마친 아들이 대견스럽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한진**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념

길거리 태권도 시범



박진교/ 성남 푸른솔
체육관장, 태권도
지킴이 시범단 관장

우리 민족의 수천년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태권도!

드디어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 태권도인을 비롯한 온 국민들의 함성이 하늘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 짜릿한 즐거운 기쁨도 잠시였다.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발표된 지 2개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행사나 대대적인 홍보 차원에서 축하대회가 없었다.

나는 “태권도가 올림픽에 채택되었음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중에 우연히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서 농구하는 학생들을 보고 “울지, 길거리 태권도 시범!”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길로 체육관으로 달려와

“길거리 태권도 시범”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만큼 빈틈없고 실수없는 시범을 보여야만 했기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시범은 지킴이 시범단(태권도 시범을 보일 목적으로 구성된 태권도 지킴이회 시범단)과 푸른솔 체육관 어린이 시범단이 시범을 보이던 된다.

시범단들은 아이디어가 좋아고 하며 태권도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한마디씩.

시범 훈련은 태권도 지킴이 시범단 엄명진 코치의 지도아래 진행됐다. 나는 푸른솔 체육관 앞에서 부터 길거리 태권도 시범이 시작되는 만큼 시범 및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며, 푸른솔 체육관 어린이 시범단의 태권무용 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드디어, 11월 5일 토요일 오후 길거리 태권도 시범을 알리



▲ 손날로 송판을 가르며 태권도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 공중에서 몸을 돌려 사과를 깨는 묘기시범을 보이자 주민들의 시선은 놀라움으로 가득찼다.

는 현수막이 내걸린 체육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후 2시 정각 차량이 통제된 가운데 길거리에서 처음으로 태권도 시범이 펼쳐졌다.

제일 먼저 푸른솔 체육관 어린이 시범단이 음악에 맞추어 태권무용을 선 보였다. 구경하던 주민들은 “태권도에 저런 것

도 있나! 처음보네, 잘하는데!”라는 감탄사와 더불어 중간 중간에 박수갈채를 아낌없이 보내 주었다.

이어서 지킴이 시범단의 태권도 격과 시범이 펼쳐졌다. 지킴이 시범단의 고난도 발차기 격과 시범이 이어질 때마다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축 10방(박점선), 공중 앞

차기 4방(김항서), 열차기 3방(이강운), 사과 던(김기호), 가위차기 3방(이규상) 등의 묘기 격파가 다양하게 이어졌다.

특히 김범신 단원의 공중 쭈가리 시범은 대단하였다. 정확하게 맞춰 사과가 터져 날아가고, 박속에 숨겨져 있는 축하 현수막과 함께 오색 찬란한 반짝이가 터져 날릴 때는 찬란한 불꽃놀이를 연상케 했다.

마지막 순서로 나의 위력격과와 어린이 시범단의 태권무용 순으로 “길거리 태권도 시범” 순회(4차) 공연은 대성황 속에 모두 막을 내렸다.

오후 6시경 정리가 대충 끝나고 체육관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3명의 꼬마가 종이와 연필, 그리고 자동카메라를 들고 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시범단의 싸인과 기념촬영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길거리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나의 가슴은 감격으로 웅숭 솟음 쳤다. “역시 태권도는 살아 있다”는 것을 만끽 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길거리 태권도 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구청,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과 성남동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 지킴이 시범단(송용섭, 염명진, 김범신, 김기호, 이강운, 이규상, 김항서, 박점선)과 협찬을 해주신 성무회에 감사사를 드린다. **END**

광주 동신체육관

3代가 태권도 유단자 가족



이재욱 관장

94년도 우수도장상 수상

광주 도심지에서 벗어난 신 홍주택지에 자리한 하남 동신체육관 본관. 깨끗한 환경에 넓은 도장시설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제 30대 중반이 된 이재욱 관장. 94년도 태권도행사는 그의 해인듯 싶다.

남달리 협회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태권도 발전에 한몫을 다한 이재욱 관장은 태권도 생활체육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94년 2월 18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시상하는 태권도 최고의 영예인 우수도장상을 받았다.

하남동국교, 광주 대회 석권

또한 꿈나무 선수육성에 열정을 다하면서 체육관 주변에 있는 하남동국민학교가 팀창단 2년만에 광주협회에서 주최한 94년도 태권도시험 초등부 전 대회-태권왕기, 광주교육감기, 광주시장기, 광주협회장기-를 모두 석권하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나타내었다.

이 관장은 아들 준호(하남동국 6년)가 다니는 학교육성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교육 발전에 한몫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태권도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보다 강인한 정신과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태권도에 소질이 있는 어린이들을 발굴하여 선수단으로 합류시키고 체계적인 기술훈련과 강인한 체력훈련을 시켜 기존의 강팀들을 물리치고 하남 동국민학교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는 주역이 되었다.

특히 아들 준호는 태권왕기 시험을 비롯하여 전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94년도 태권왕 및 최우수선수로 뽑혔고 이재욱 관장도 최우수 지도상을 받아 부자(父子)간에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 영광뒤에는 부인 김영숙씨의 숨은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 시험이 있는 날이면 선수들을 모두 자신의 집에 채우고 밤잠



▲ 8회 교육감기 우승기를 차지한 하남동국



▲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아들 준호와 함께

을 설치하며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간식과 김밥을 정성껏 준비해 어린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고, 태권도 행사때

마다 남편을 도와 여러가지 힘든 행사준비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주었다.

이재욱 관장은 전남고흥에서 부친 이태형(62세)씨와 모친 신순심(58세)씨 사이에 3남매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함께 태권도를 배워온 이재욱은 성격이 활발하여 매사에 적극적이고 정의감있는 어린이로 성장하였다. 태권도의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그는 태권도사범의 길을 결심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아버지 이태형씨도 회갑이 지난 고령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열성과 중의 한사람이다.

특히 10여년전 5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4단 심사예

응시하여 당당히 합격하였고, 그 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 소령화 되어가는 태권도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아들 준호도 현재 2품이지만 내년 봄에 3품을 보게 된다. 이로써 3대(代)가 태권도 유단자가족이라는 기록도 갖게 되었다.

이재욱 관장이 동신체육관을 설립한 지 여인 1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배출한 유단자만도 수백명이 되고 제자들 중에 광주시에 체육관을 개설하여 후진양성에 나선 사람만도 여러명이다. 2도장 한재환 관장, 3도장 박진호 관장, 5도장 최영배 관장, 6도장 지기현 관장, 7도장 한재운관장 등 이들은 이재욱 관장의 뜻을 따라 협회의 모든 행사참여 및 태권도 보급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나간 한해를 결산해 보는 이재욱 관장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도 태극기의 물결이 하늘높이 메아리쳤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태권도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더욱 보급 발전되고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인기종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도 태권도 지도에 여념이 없는 모든 태권도 지도자들의 공통의 바람이 이루어질 날도 멀지 않았다. **태권**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내가 만난 武道人



이준호 / 문화일보 체육부기자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리고 태권도의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으로 숨가쁘게 지나간 94년 한 해 동안 3부류의 특색있는 武道人을 만났다.

7월말 캐나다 매니토바주 브랜턴시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한국선수단은 4강이 목표였지만 13년만에 우승을 거머쥐었고 하루가 꼬박 걸리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태권친구를 사귀었다.

야구장에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7살짜리 트레버 펙크 군. TAEKWONDO가 새겨진까만 모자의 주인공은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임을 깨닫고 한국선수단 주변을 맴돌았다. ‘미스터 아이스크림’으로 부르며 귀여운 생김새 때문에 관심을 기울였다. 취재욕심 탓에 이것저것 태권꼬마에 관해 취재하던 도중 곧 태권도만이 지니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태권꼬마는 사범이 누구냐는 질문에 사범의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또박또박 대답했다. 또 도장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카메라를 사기위한 목돈을 마련하려고 도장 동료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태권도는 ‘道’, 즉 교육과 수양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마스터는 단순히 발차기를 가르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로서 태권꼬마와 그의 동료들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기에 생년월일까지 외우는 것이 아닐까.

9월 초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 커피숍. 태권도와 가라데의 교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동해대 가라데부 도시아키 감독(41)과 법정대 나가다 감독(40)을 만났다. 이 두 감독은 양교의 가라데 학생 50여명을 이끌고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현해탄을 건넜다. 특히 지난 90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한국에 왔던 도시아키 감독은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일본 가라데 대표팀의 코치이며 일본 공수도연맹의 사무국장이다.

이 둘의 의견은 한결같았다. 태권도와 가라데는 한 뿌리라는 것. 굳이 구분을 하자면 태권도는 발 위주, 가라데는 손 위주의 무도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더군다나 나가다 감독은 가라데의 장점에 대해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지고 이기고를 떠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길러내는 것이 가라데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즉 태권도와 가라데는 외형적인면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도 같다는 설명이었다.

도시아키 감독은 “태권도의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으로 가라데가 다소 위축되었지만 같은 무도인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태권도-가라데의 연구는 물론 양국 학생들의 교류와 우의증진을 위해 계속 한국을 찾겠다”는 대범함을 보였

3부류의 무도인은 태권도의 가치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강조했다. 그러나 그들이 던져준 교훈은 하나였다. 태권도는 **도이며 또 세계화를 강조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世界化무기라는 점이다.**

다.

이 두 감독이 기억에 남는 것은 태권도와 가라데의 교류를 위한 열성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순수민간차원의 교류인 탓에 체재비용도 자비로 충당했다. 때문에 매년 한국에 오는 것은 무리라며 4년마다 한 번씩 한국을 찾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무대 입성을 놓고 다소 불편한 관계였던 것은 태권도와 가라데의 지도부일 뿐 대부분의 무도인은 서로 존중하고 아껴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글자 그대로 武道는 道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11월 초 대전 공설운동장 앞. 낮은 도복을 입은 파란눈의 이방인 한 떼를 목격하고는 곧 바로 취재에 나섰다.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전국체전을 구경하고 한 수 높은 태권도를 몸으로 익히기 위해 한국에 온 뉴질랜드 유단자들이었다.

인솔자는 대한체육회 뉴질랜드 지부장인 이정남 씨(58). 75년 뉴질랜드에 정착, 태권도 전파에 큰 공을 세운 9단의 실력자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태권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수준도 상당하다고 귀뜸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헤비급서 수잔 그레함이 은메달을 따냈다고며 물증(?)까지 제시했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자 이 씨는 '한국말'로 오와 열을 맞추도록 지시했고 '한국말'로 태권자세를

바로잡았다. 외국수련생들을 처음보는 터이기에 한국말에 복종하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세계화를 소리높여 외치는 지금, 태권도는 세계 시장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무려 4천만명이 전세계 곳곳(144개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며 세계속의 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초공사를 이미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믿을직스럽다.

3부류의 무도인은 태권도의 가치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강조했다. 그러나 그들이 던져준 교훈은 하나였다. 태권도는 道이며 또 세계화를 강조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世界化무기라는 점이다.

94년은 태권도, 나아가 한국스포츠에 큰 획을 그은 한 해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금메달을 몇 개 보장받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세계의 스포츠로 공인받았기 때문이다.

태권도의 올림픽입성은 더 큰 과제를 던져줄 뿐이다. '게임'으로써 세계스포츠무대에서 인정받은 만큼 지나친 게임화를 경계하며 道로서의 제 위치를 지켜야 한다. '세계화'에 가장 가까운 한국 고유의 스포츠인 만큼 태권도와 한국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개발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언뜻 보기에 상충되는 두 얼굴을 지닌 태권도. 이 즐거운 모습은 태권도인의 고민으로 풀어야 하는 '태권도인의 뗏'이다. **태권도**



4대륙 사범들의 올림픽채택에 관한 소감

정 필 상/국민일보 체육부기자

1994년 9월 4일은 한국스포츠사에 큰 획을 그은 날이다.

한국의 태권도가 온갖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는 태권도를 철인 3종경기와 함께 만장일치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승인했다.

태권도가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국제스포츠무대에 한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태권도용어인 한국어가 올림픽공식언어로 사용된다.

순수 경기력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태권도에서
만 4개 정도의 금메달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
어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부터 지켜온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쾌거는 지난 60년대, 주먹 하나만 믿고 세계 각국으로 진출해 검은 피부나 파란눈의 제자들에게 한국과 태권도를 가르친 사범들의 공로에 힘입은 바 크다.

태권도란 이름이 알려지기 전인 당시 사범들은 무명의 태권도 대신 「코리아 가라테」란 간판을 걸고 수련생을 모집해야 하는 수도모 겪었으나 이제 당당히 제 이름을 갖고 올림픽 종목으로 우뚝 서

게 된 것이다.

한국의 국기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데 헌신하고 있는 각 대륙의 지도자 4명으로부터 올림픽 채택에 대한 소감과 세계에 뿌리박은 태권도의 위상을 들어본다.

▲ 김영기(39, 스페인 태권도협회 기술위원장)
= 스페인은 93년 뉴욕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서 종합 2위를 하는 등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고 호주올림픽에서도 이 성적을 유지, 유럽 태
권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

스페인 태권도는 유럽 최강으로 국가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스페인 정부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거루기, 품새뿐 아니라 체육생리, 기초의학, 체육지도법 등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승단도 가능하다.

올림픽 채택 발표 이후 스페인 정부는 96년부터 직업학교와 체육대학에 태권도를 정식 학과로 신설키로 해 태권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현재 스페인에는 3천여 도장에 30만명이 태권도 인구로 집계되고 있다.

스페인의 태권도 용어는 다른 나라와 같이 모두 한글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범들에 따라 용어가 조금씩 달라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선 조속히 통일 교본이 만들어 져야 하며 국내 지도자들이 「사이드 킥 이니 러닝 킥 이니 하며 영어로 가르치

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 노계형(56, 호주태권도협회장) = 호주 시드니올림픽서 태권도가 처음으로 정식종목이 돼 감개무량하고 어깨가 무겁다.

65년 호주로 건너가 가라데와 유도의 기세를 꺾고 국내 최고의 무도스포츠로 자리잡게 하는데 말로 다하지 못할 어려움이 많았으나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으로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잊을 것 같다.

호주에는 현재 5백여 도장에 한국인 사범 50여 명을 비롯한 호주인 사범들이 5만여명의 수련생을 가르치고 있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 돼 수련생들이 더욱 늘 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가적 지원도 훨씬 좋아졌다.

그러나 친북단체인 국제태권도연맹(ITF) 소속 인사들이 우리와 엄연히 경기 방식 등이 달라 올림픽과 관련없는데도 자기네들의 경사인 것처럼 선전하고 다니는 등 방해를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행정적 정리가 필요하다.

▲ 스티븐 순 신(58, 미국태권도연맹 부회장) =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다.

지난 71년 미국태권도연맹이 미국올림픽위원회에 정식 가맹한 뒤로 태권도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3천여 도장에서 25만명이 미국태권도연맹에 등록돼 수련하고 있다.

지난 9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팬암 대회에서는 북남미 34개국에서 2백 7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 태권도가 전 아메리카 대륙에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에는 버클리 대학, 아이오와 주립대학 등에서 태권도가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있고 다른 대학과 종교교에도 정규과목으로 넣기위해 미국연맹이 힘쓰고 있다.

또 아시아게임과 비슷한 성격의 팬암 게임에 87년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한가지 아쉬움은 세계 각국의 눈부신 발전에 비

해 세계 태권도의 총본산인 국기원이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등 발전이 더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요망된다.

▲ 홍성천(50, 필리핀태권도협회 부회장) = 설립한 국내 태권도대회와 달리 6천여 관중들의 응원속에 대회를 치르는 곳이 필리핀이다.

79년 필리핀 양대 명문 대학인 라살대학과 아데네대학에 태권도부가 창설돼 라이벌 대학끼리의 정기 대항전으로 발전,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인기종목의 가능성을 싹틔웠다.

이후 79년에 제1회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자 3천여 관중이 매일 체육관을 찾아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상하류 계층이 뚜렷한 필리핀에서 정부 고위층과 사회 상류인사들을 제자로 가르치면서 태권도는 고급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필리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단딘 고양코, 부통령 특별보좌관 로버트 아벤데하도(현 협회장) 등과 연에게 유명 배우 등도 태권도인으로 등록했다.

마닐라에 중앙도장을 설립, 매년 엘리트 학생위주의 기술별 수련생들을 모집해 현재 16기까지 3백 50명의 특별제자를 전국에 심어놓고 있고 도장을 중심으로 젊은 층에 확산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을 벌이고 있어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활약으로 태권도협회는 93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 1천 5백여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84년에 이어 94년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치렀으며 95년 세계선수권대회도 유치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는 한국인 사범 6명과 필리핀 사범 1천 5백명이 30만 태권도 인구를 지도하고 있다.

올림픽 채택을 계기로 태권도가 좀더 재미있는 경기가 되도록 채점방식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점수를 가격부위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경기복도 색다르게 바뀌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경**

봄 · 풍경

안 의 선

아직도 언 땅을
 헤쳐가며
 봄을 캐는 아이들

호미 끝에
 묻어 나오는
 봄 소식은
 한 뿌리의 냉이

덧발엔 아직도
 찬바람이
 뛰
 노
 는
 데

아이들의 바구니엔
 가득찬
 봄빛.

 시인 · 안의선

1964년 경기 안양출생

 제 1회 영릉백일장 및 제 4회 중앙시조백일장 입상
 〈죽순문학〉 〈시조문학〉 〈소년〉 추천완료

제 2회 새싹시조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안산문인협회 회원, 현대시조문학회 이사
 시집 〈보름달 달빛을 엮으며〉

저온손상 - 저체온증과 동상

겨울철 추운 날씨에 운동할 경우 가장 주의하여야 할 일은 소위 저온손상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조물주가 사람을 만드실 때 더위에는 비교적 잘 견디게 만드셨지만 추위에는 그렇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류는 더운 지방에 몰려 살았는데,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의복과 주택이 개선됨에 따라 추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추운 겨울철에도 운동을 즐기게 되었다. 따라서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겨울철 추운 날씨도 스키, 스케이트, 등산, 낚시, 사냥 등 각종 실외 스포츠, 레저활동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아이러니컬 하게도 오늘과 같은 문명시대에 동상과 같은 소위 저온손상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 몸의 체온조절은 열생산과 열손실의 균형에 의하여 유지된다. 열생산은 음식, 근육의 일, 그리고 체내의 여러가지 화학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며, 열손실은 주로 피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질병으로 열생산이 많아져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피부의 혈관들이 확장되어 몸안의 열을 몸밖으로 방출하기도 하고 땀을 많이 만들어 내어 땀의 증발을 통하여 더 많은 열을 발산하기도 한다. 반면 추위에 노출되어 열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게 되면 피부와 피부의 혈관들이 수축되어 열방출을 줄이게 된다.

사람이 심한 저온에 노출되거나 저온에 오래 노출되면 소위 저온손상에 걸리게 된다. 저온에 의한 손상에는 전신적인 저체온증과 국소적인 동상이 있다. 저체온증이란 찬 대기나 찬 물 등 저온



김철준/한국MSD임상의학연구소장,
전 서울중앙병원 운동의학센터 소장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겨울철 추운 날씨도 스키, 스케이팅, 등산, 낚시, 사냥 등 각종 실외 스포츠, 레저활동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아이러니컬 하게도 오늘과 같은 문명시대에 동상과 같은 소위 저온손상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에 오래 노출되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찬바람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시간내에 저체온증에 걸리게 된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몸을 많이 떨게 되나 심한 경우에는 몸의 떨림이 오히려 감소한다. 환자는 무표정해지고 말이 적어지고 몹시 지쳐보이며 근육의 경직과 운동의 장애를 보이고 방뇨를 하기도 한다. 혈액순환의 장애가 오고 심장기능도 떨어지고 호흡장애도 일어나며 심하면 의식의 장애나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저체온증이 의심될 때에는 더 이상 찬 공기나 찬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젖은 모자, 장갑, 양말 등을 벗기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옷을 느슨하게 해준 후 서서히 몸을 따뜻하게 해 주도록 한다. 심한 경우(직장 체온이 32도 이하)에는 위급 상황이므로 상기와 같은 조치를 취한 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동상이란 몸의 일부분이 실제로 얼어버린 상태를 말하며 이는 발가락, 손가락, 코, 귀, 얼굴 등 신체 말단이나 노출된 부위에 잘 생긴다. 동상에 걸리게 되면 감각의 장애가 오게 되고 따끔따끔하거나 저리는 듯 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동상에 걸린 부위의 피부는 백색이나 황백색 또는 청백색을 띠게 되고 때로는 물집이 생기기도 한다.

만일 동상이 의심될 때에는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동상 부위의 양말이나 장갑 등을 조심스럽게 벗긴 다음 언 부위를 목욕물 정도의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이도록 한다. 이때 동상 부위를 비벼대거나 난로나 불가에 쬌이거나, 눈이나 얼음 등으로 문지르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한다. 만일 물집이 생겼으면 이를 터뜨리지 말고 건조시킨 후 깨끗한 붕대나 수건으로 부드럽게 감싸 주어야 한다. 또한 발가락이나 발에 동상이 걸렸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걷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전신을 따뜻하게 유지한 후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의 저온손상은 추운 날씨나 물에 잘못 노출될 때 발생하므로 겨울철에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잘 지켜 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태권**

1. 옷은 가능한 한 여러 겹을 입어야 한다. 두꺼운 옷 한두장 보다는 얇은 옷 서너장을 입는 것이 훨씬 보온이 잘 된다.
2. 옷의 재질은 안에는 보온이 잘 되는 모직이 좋으며, 겉에는 방풍, 방수가 잘 되는 고어텍스같은 방수 및 투습성 원단이 좋다.
3. 머리, 코, 귀, 손, 발 등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신발이나 장갑이 너무 꽉 끼면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므로 위험하다.
4. 옷이 젖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음식은 칼로리와 수분섭취를 충분히 한다.
6. 바람 속에서는 걷지 말고 달린다.
7. 휴식은 혈관수축을 일으켜 저온손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므로 삼가도록 한다.

태권도 소식

대한태권도협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대표팀 모두 금메달 개선했다

10월 8일과 9일 히로시마 아끼위드 체육관에서 거행된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4체급에 출전,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국위를 선양하였다.

21개국에서 71명의 선수가 출전해 남자 8체급 경기가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금메달 4개를 따내 이어 이란이 금1, 은2, 동1, 쿠웨이트와 대만이 금1, 동1개를 각각 따냈다.

진승태, 김제경 연금 월 20만원 혜택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성적에 따라 태권도에서는 2명의 선수가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 수혜자로 선정되어 12월부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신규연금대상자로 선정된 선수는 플라이급 금메달리스트인 진승태와 헤비급 금메달리스트인 김제경으로 월 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페더급 금메달리스트인 김현용과 웰터급 금메달리스트인 정광채는 격려금을 받게 되었다.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국위를 선양한 문원재

코치는 경기지도자 연구비를 받았다.

'95국가대표선발전 3월 실시

'95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제12회 남자 및 제5회 여자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파견될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95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는 '94년도 국가대표 체급별 1, 2위자, '94년도 우수선수선발대회 체급별 1, 2위자와 '95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국가대표선발전 예선 경기의 체급별 1, 2, 3위자 4명 등 총 8명이 토너먼트 개인전을 거쳐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경기규칙 강습회 실시

대한태권도협회는 '95년 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경기규칙강습회를 실시한다.

경기규칙 강습회는 각팀의 코치 및 감독과 심판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95년도 각팀의 코치 및 감독으로 활동할 사람은 반드시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해야 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심판자격소지자로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한 사람 중 60여명을 상임심판원으로 선발하여 각종 전국 규모대회에 심판원으로 활동하게

할 예정이다.

'95년 1월 이집트, 이란 국제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대한태권도협회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는 제1회 이집트 국제 태권도대회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란 이스파한에서 개최되는 제8회 "여명의 열흘" 이란 국제태권도대회에 각각 한국대표선수단을 파견한다.

제1회 이집트 국제대회 한국대표팀 감독에는 노우중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코치에는 12회 아시안게임 코치로 지도력을 인정받은 문원재씨가 선임되었으며 국가대표선수는 '94년도 남녀 국가대표 1진 12명이 파견된다.

제8회 이란 국제태권도대회 감독은 이봉 대한태권도협회 총무부장, 코치에 임영선 영북종고 코치가 선임되었으며 '94년도 국가대표 2진 남자 8명이 파견된다.

(이집트 국제대회 선수단 명단)

▲감독: 노우중(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코치: 문원재

▲남자선수

- 플라이급: 고동완(한국체대)
- 밴 텀 급: 김현용(경희대)
- 페 더 급: 양재철(한국체대)
- 라이트급: 정광채(한국체대)
- 웰 터 급: 김경훈(한국체대)
- 미 들 급: 박종범(상무)

▲여자선수

- 플라이급: 이순영(용인대)
 - 밴 텀 급: 진용순(한국체대)
 - 페 더 급: 신동선(성신여대)
 - 라이트급: 강해은(경성실고)
 - 웰 터 급: 조향미(경희대)
 - 미 들 급: 박선미(상명여대)
- (이란 국제대회 선수단 명단)

▲감독: 이봉(대한태권도협회 총무부장)

▲코치: 임영선(영북종고 코치)

▲선수

- 핀 급: 진승태(한국체대)
- 플라이급: 유상문(한국체대)
- 밴 텀 급: 조진호(한국체대)
- 페 더 급: 이준희(태성고)
- 라이트급: 양재훈(한국체대)
- 웰 터 급: 김동민(한국체대)
- 미 들 급: 이동완(한국체대)
- 헤 비 급: 김정규(경희대)

▲국제심판: 장용갑

서울특별시협회

서울시장기 대회 개최



대회개회식에서 대회사를 하는 엄운규 서울시협회장

서울시 협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국기원에 서 국민학교 128명, 중학교 215명, 고등학교 92명, 대학 일반부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장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소속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거듭했다.

대회결과 국교부는 광희국교가 우승기를 차지했고 중등부는 당곡중학교가 처녀 우승했으며, 고등부는 송곡고가 태권도 명문고로서의 위용을 떨쳤다. 대학·일반부는 지하철공사, 여자부 우승은 경서여자 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의 초·중·고·대학부 우수선수 2명씩 총 8명에게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체육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국교부: 광희국교 최일용, 광희국교 채승호(각 10만원씩)

▲중등부: 당곡중 김영정, 당

태권도 소식

곡중 한철민(각 20만원씩)
 ▲고등부: 송곡고 이태민, 송
 곡고 방효성(각 30만원씩)
 ▲대학부: 경원대 임성수, 한
 국체대 정준호(각 50만원씩)

'94년도 심사 행사 종료

서울시는 지난 12월 11일(일)
 국기원에서 제 426회 승품심사
 대회를 끝으로 1994년도 승품·
 단 심사대회를 마감하였다.

이날 심사대회에는 1품 응심
 자만 약 2,800여명이 참가한 가
 운데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지난 1년간 승품단 심사 결과
 태권도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었
 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일선 태권도장 사범들은 심사
 인구의 증가가 자칫 수련의 질
 적인 가치를 저하시키는 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도 높
 은 태권도 기술을 지도함으로써
 심신을 단련토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체육관 설치 및 등록 규
 정에서 거리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무분별한 경쟁 심리가 발
 동, 태권도계의 덕목처럼 중시
 되던 위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태권도인
 으로서의 예의범절을 지키고 기
 본적인 도덕성을 갖고 태권도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과당경쟁
 과 상호비방을 하지말자고 결의
 했다.

〈서울 박노규·김종오 편집위원〉

부산직할시협회

10, 12월 심사, 5천여명 응심

부산시협회는 지난 10월 16일
 과 12월 11일 구덕체육관에서의
 심사를 끝으로 올해의 심사대회
 를 모두 마쳤다.

10월의 심사에는 총 2300 여
 명, 12월의 심사에는 3000 여명
 이 응심하여 태권도 인구의 저
 변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김차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의 발전을 위해 태권도인들이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우수 도장에 대한 표창과 제75
 회 전국체전에 출전해 부산의
 명예를 높인 입상자에게 포상금
 을 전달하였다.

▲우수도장 표창

대웅체육관(노길동), 형제체
 육관(김종관), 유한체육관(정문
 식), 신정체육관(김만홍), 비호
 체육관(노공우), 명진체육관(윤
 현추), 구학체육관(이점필)

▲전국체전 입상자

지도자: 김영식(고등부), 김
 우규(대학부), 박창웅(일반부),
 이부용(여자부)

선 수: 금매달-장진혁(금정
 고), 유용진(동아대), 이현석(부
 산체육회)

은매달-이임수(동아대), 조재
 영(배정여상)

동매달-강동국(동아대), 강창
 모(부산체육회), 차춘희·김영

회(동명전문대학)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대구직할시협회

7개 지부 천선택육대회

대구직할시 협회는 10월 8일 영진전문대학 운동장에서 7개지부 체육대회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벌어진 축구, 배구, 릴레이, 마라톤 등으로 펼쳐진 체육대회에는 250 여명의 체육관장들이 친목과 단결, 화합된 면모를 보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종합우승은 달서구협회, 준우승은 북대구협회, 3위 남대구협회, 갑투상은 중대구협회가 각각 차지하였다.

제5차 승품, 단 심사대회

대구직할시협회에서는 제5차 승품, 단 심사대회를 10월 27일 대구체육관에서 1800여명의 응심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1품 1,081명, 2품 436명, 3품 99명, 1단 97명, 2단 38명, 3단 23명, 4단 25명, 5단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94 대구선수권 아양국, 칠곡중, 배영고 정상

12월 2일 대구체육관에서 열

린 '94년도 우수선수권대회에서 아양국고는 11체급 중 7체급을 석권하였고 중학부는 칠곡중이 5체급을 석권하여 1위에 올랐다. 고등부 경기에서는 배영고가 6체급을 석권하여 대구시장기를 거머쥐었다. 이날 각 부별 지도상은 박종창(배영고)코치, 이성국(칠곡중)코치, 이성현(청구중)코치, 장두원(아양국)코치가 수상하였다.

(각 체급별 우승자)

▲국교부: 박창민(아양국), 오일환(진천국), 이영목(아양국), 조바로(아양국), 오성윤(아양국), 하성룡(아양국), 남정민(달서국), 박상현(아양국), 박남규(진천국), 김도훈(진천국), 김민석(아양국)

▲중등부: 이승은(칠곡중), 이태호(칠곡중), 김준우(칠곡중), 윤민철(칠곡중), 엄현철(청구중), 김보상(청구중), 신중수(학산중), 황인성(칠곡중), 김이준(청구중)

▲고등부: 송상영(대구공고), 백지훈(대구상고), 김선윤(배영고), 김철완(배영고), 양병수(배영고), 남승철(배영고), 전진환(배영고), 김상민(배영고)

〈대구 정우희 편집위원〉

인천직할시협회

제3회 교육감기대회 개최

제3회 인천시교육감기 대회가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인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인천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인천시체육회 및 인천시교육청이 후원한 이날 대회는 모두 6백90명의 선수가 출전, 그동안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관중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이날 대회는 남·여 국민부, 남·여중부, 남·여고부 등 모두 6개부로 나뉘져 펼쳐졌으며 특히 여국민부는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신설돼 좋은 호응을 얻었다.

경기에 앞서 윤치영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태권도인의 자부심을 갖고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어 좋은 기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오늘 참가한 선수들은 끝까지 스포츠맨십과 태권도 정신에 입각하여 경기에 임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첫 신설된 여국민부의 종합 1위는 인천 장수국고가 종합 2위는 인천창영국민학교가 각각 차지하는 등 국민학교 여자부 신설로 인해 이 부문의 선수 저변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단체성적)

▲남자국민부 1위: 관교국고, 2위: 문호석, 지도상: 이찬우

▲여자국민부 1위: 장수국고, 2위: 창영국고, 최우수선수: 임원경, 지도상: 김영수

▲남중부 1위: 관교중, 2위: 효성중, 3위: 구월중, 최우수선수: 정병원, 지도상: 양승찬

▲여중부 1위: 만수여중, 2위:

태권도 소식

동인천여중, 최우수선수: 박지혜, 지도상: 유도곤

▲남고부 1위: 인천체고, 2위: 광성고, 3위: 선인고, 최우수선수: 이재성, 지도상: 양기모

▲여고부 1위: 북공고, 2위: 인천체고, 최우수선수: 손영심, 지도상: 서광수

이날 행사는 각 구별로 배구와 족구 등 2개부문으로 나눠져 펼쳐졌다.

▲배구...1위: 남구태권도협회, 2위: 남동구태권도협회

▲족구...1위: 서구태권도협회, 2위: 남동구태권도협회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체육대회 통해 친목도모

태권도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배양키 위한 제2회 체육대회가 지난 11월 28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인천시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시협회 산하 6개 구협회에 등록된 일선사범 8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다져진 화합을 더욱 굳게하는 장이 되는 한편 구협회 결속을 위한 한마당이 되기도 했다.



▲ 문성고 박종선감독, 최기술사범과 태권도부원들

광주직할시 협회

김주훈회장, 시민 대상 수상

광주직할시협회 김주훈 회장(현 조선대 체육대학장)은 11월 1일 광주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육성에 공헌한 공로로 광주시민대상을 수상하였다.

시민대상은 사회봉사분야, 학술분야, 체육분야, 예술분야, 지역경제분야 등 5개 부문에 시상하는데 체육분야에 수상을 하게 된 김회장은 받은 상금전액을 전국체전 성공으로 기탁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문성고 태권도부 창단

광주에 고등학교 태권도부가 한팀 늘어났다. 지난 9월 30일 문성고등학교가 창단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문성고 태권도부는 올해 소년체전 및 전국 중등부 대회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 주었던 문성중학교 졸업반 선수들 8명을 주축으로 감독에 박종선 교사, 코치에 최기술 사범이 맡게 되었



▲ 강운대시장으로부터 상패와 상금을 받고 있는 김주훈회장과 부인 진선자씨

다. 소년체전 2연패의 김재훈, 최우수선수의 김의철 등 막강한 전력으로 광주 태권도에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심사와 겨루기 동시 개최

광주협회에서는 시범적으로 승품·단 심사를 겸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10월 1일과 2일, 제 7 회 시장기 초·중·고 대회를 실시하면서 결승전을 치루기 전 승품·단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보통 때보다 훨씬 열기가 있고 또한 관중 동원면에서도 성공을 거둔 대회가 되었다.

각 부 채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오영학(문화국), 고정표(대촌중앙국), 양재은(봉주국), 김승태(학강국), 신상훈(하남동국), 이우영(봉주국), 김정용(두암국), 안주용(하남동국),

이준호(하남동국), 김영생(하남동국), 정재운(중흥국)

▲중등부: 유지호(문성중), 김동혁(문성중), 강창호(북성중), 최진성(북성중), 김의철(문성중), 선영준(문성중), 윤석현(상무중), 김주영(상무중), 김종민(체육중), 강창민(북성중), 문형철(북성중)

▲고등부: 이진서(고려고), 김남곤(국체고), 이상훈(체육고), 신혁구(체육고), 임순섭(고려고), 김성준(고려고), 서성복(체육고), 최희성(체육고)

12월 승품단 심사 실시

'94년도 마지막 행사로 12월 4일 염주동 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를 실시하였다.

품단별 응심자 현황을 보면

1품 391명, 2품 190명, 3품 40명, 1단 277명, 2단 75명, 3단 32명, 4단 7명, 5단 5명 등 총

1,017명이다.

광주협회는 이들 중 우수자 10명(품새 5명, 겨루기 5명)을 선발해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였다.

체육관협의회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김정록 관장



광주직할시 체육관협의회 정기총회가 '94년 12월 14일 국민생활관에서 열렸다.

광주시내에 산재한 143여개의 태권도 관장들의 모임단체인 협의회는 광주태권도협회와 긴밀한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 협조하여 태권도 행사를 치루고 관장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태권도 보급 발전에 한몫을 다하고 있다.

이 총회에서 한길진 회장의 후임으로 김정록 관장을 제 3대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신임 김정록 회장약력

1937년 9월 23일생
현재 유성체육관장(현 8단)
(전) 국기원 고단자 심사위원,
전남 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광주고속 거북이 체육관 사범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태권도 소식

대전직할시협회

제 6 회 교육감기 대회개최

대전직할시 협회는 제 6 회 교육감기 대회를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다목적 체육관에서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치루어졌다.

대전직할시 한용석 협회장은 대회를 통해서 『태권도가 오는 2천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며 『창의적인 기술개발, 맘으로 얼룩지는 연습을 통해 중구국다운 태권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총 매진 하여야 한다』고 당부 하였다.

대전직할시 박경원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하여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 태권도가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되어 기쁘다』며 태권도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가 2위를 차지하여 대전의 긍지와 위상을 높여준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

▲ 국교부 : 서재은(한밭국), 육설민(동대전국), 하민철(옥계국), 박철순(홍릉국), 김영진(동대전국), 오지원(동대전국), 최웅석(장동국), 방성수(옥계국), 오석재(보은국), 김협(도마국), 노준호(와동국)

▲ 중등부 : 윤장환(대전중), 정우대(체육중), 황창환(신탄진중), 서해령(오정중), 김영일(오정중), 조수현(신탄진중), 박순용(체육중), 남덕현(대전중), 이갑주(오정중), 김정필(대전중), 장성훈(오정중)

▲ 고등부 : 조만복(대성고), 이창호(명석고), 이은철(대성고), 명순모(대성고), 차시우(새일고), 박범용(경덕공고), 배병옥(명석고), 박영덕(동신고)

▲ 여자부 : 박신애(변동중), 홍미진(도마중), 박은옥(내동중), 황미선(체육중), 김주미(충남여고), 박소연(봉산중)

(단체성적)

▲ 국교부 : 우승-와동국민학교
준우승-보은국민학교

3 위-동대전국민학교

▲ 중등부 : 우승-오정중학교
준우승-신탄진중학교

3 위-체육중학교

▲ 고등부 : 우승-새일고등학교
준우승-대성고등학교

3 위-동아공업고등학교

〈대전 신재홍 편집위원〉

경기도협회

10, 11월 승품단 심사

경기도협회는 10월 2일과 11월 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3910명의 유단품자를 배출하여 태권도의 생활체육 확산과 발전에 기여했다.

10월 2일 심사에서는 유품자 1286명, 유단자 372명 등 총 1660명이 합격하였고 11월 6일에는 유품자 1736명, 유단자 514명 등 총 2250명이 합격하였다.

〈경기 김형호 편집위원〉

강원도협회

10월 심사 총 542명 합격

강원도협회는 10월 29일 승품단심사를 실시하고 54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이 258명, 2품 114명, 3품 23명, 1단 87명, 2단 50명 3단 10명이 다.

〈강원 최문식 편집위원〉

충청북도협회

지도자 친목 체육대회 개최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각종 태권도 행사로서 태권도 대회, 승품·승단심사, 지도자 보수 교육 등 기타 여러가지 행사로 태권도인들 간에 만남은 여러번 있으나 도내에 있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는 사실상 갖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본도 태권도협회 후원 아래 제1회 먼저 국민학교 태권도 지도자들이 주관하여 지난 11월 20일(일요일) 청주 주성국



▲ 충북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졌다.

민학교 운동장에서 도내에 있는 태권도 지도자를 초청하여 명칭을 '충북 태권도지도자 친목 체육대회'라는 명목아래 성대히 거행했다.

위낙 도내에 있는 태권도지도자들의 숫자가 많고 처음 실시하는 행사인지라 청주시를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단양, 제천, 증원, 충주시 등을 주로 초청하여 지역별로 6개팀을 구성하여 족구, 배구, 축구 등을 주종목으로 실시하고, 번의 경기로 테니스 경기를 실시하였다.

예상한대로 지도자들의 호응이 좋아 90여명의 지도자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각 팀별로 열띤 응원 속에 그동안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길러진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안간힘을 다 쏟았다.

그 결과 족구는 충청북도 태권도협회가 차지했고, 배구는 국민학교 지도자가, 축구는 동

부지역 태권도협회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은 종일 경기를 마치고 저녁은 태권도 협회에서 제공하였는데, 식사를 하면서 즐거웠던 그날의 행사에 대한 정담을 화기애애한 가운데 나누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매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자들간의 친목 체육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매년 이 같은 대회가 보다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1회 교육감기 대회 개최

충청북도 초·중·고 대항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가 지난 11월 12일과 13일 2일간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실시되는 대회라서 인지 역대 대회사상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하여 이틀간

태권도 소식

세코트에서 진행되었는데 각 부
채급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국교부 : 조중현(서원국), 김
명환(성남국), 반재희(홍덕국),
김용일(서원국), 박영욱(무국
국), 신영근(서원국), 함근식(비
상국), 정철희(성남국), 한길수
(산남국), 김승현(산남국), 김경
구(창신국)

종합순위 : 1위 성남국, 2위 서원
국, 3위 산남국, 장려 창신국

▲중학부 : 박형순(오창중), 김
종성(청주중), 최용주(증평중),
정기환(서원중), 오기탁(미덕
중), 신영재(청주중), 이종현(청
주중), 민병기(청주중), 임대호
(청주중), 원성희(제천중), 신낙
규(서원중)

종합순위 : 1위 청주중, 2위 서원
중, 3위 매포중, 장려 제천중

▲고등부 : 유인평(체고), 빈운
근(체고), 김향수(청기공), 양순
호(청기공), 이정태(체고), 김동
주(신흥고), 이광종(체고), 김현
호(신흥고)

종합순위 : 1위 체육고, 2위 청기
공, 3위 신흥고, 장려 보은고.

‘충북 태권도인의 밤’ 개최

충북협회는 12월 17일 오후 6
시 영부페에서 충북 태권도인들
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충북
태권도인의 밤을 가졌다.

한편 충북협회는 12월 27일
오후 6시 썬프라자에서 이사회
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
산에 대해 의결했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충청남도협회

승품·단 심사대회

충남협회는 지난 10월 23일
94년도 5차 승품·단 심사를 실
시하고 총 892명의 합격자를 배
출했다.

품·단별 합격자 수는 1품
339명, 2품 172명, 3품 46명, 1
단 156명, 2단 57명, 3단 32명,
4단 22명, 5단 8명이다.

제 1 회 충남 태권도 한마당 대회 개최

지난 10월 15일과 16일 2일간
대천시민체육관에서 관련 기관
단체장과 선수 임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 회 태권도
한마당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충남협회에서 주최한 이대회
에서 단체전은 일반품새, 창작
품새, 태권체조 및 호신술이, 개
인전에서는 손날격파, 높이 뛰
어차기 등 여섯가지를 선보였
다.

한편 부문별 1위 입상자는 대
한 태권도 협회가 주최한 '94 태
권도 한마당에 참가했다.

종목별 1위자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일반품새 : 충무체육관

▲창작품새 : 비룡체육관

▲태권체조 및 호신술 : 무술체
육관

(개인전)

▲손날격파 : 김태우(태영체)

▲ 주먹격파 : 김정우(주공체)
 ▲ 발 격 파 : 김태우(태영체)
 ▲ 멀리뛰어차기 : 박성민(푸른체)
 ▲ 높이뛰어차기 : 현인섭(푸른체)
 ▲ 종합격파 : 노길래(유대체)
 (부별종합우승)
 ▲ 국교부 : 온양 충무체

▲ 중등부 : 서천 유대체
 ▲ 고등부 : 당진군 협회
 ▲ 일반부 : 대전시 협회
 ▲ 여자부 : 비룡체
 ▲ 장년부 : 심우성(월드체)

전라북도협회

제31회 회장기 대회개최

전북협회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주실내체육관에

금산 비룡 체육관 '94 태권도 한마당서 창작 품새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한 태권도한마당 '94에서 충남대표팀인 금산비룡체육관(관장 정현도) 소속선수 8명은 청년부 창작품새 부문에 출전, 결승전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충남 태권도한마당 대회에서 많은 팀들을 물리치고 충남대표팀으로 선발된 이들은 토·일 일에도 쉬지않고 꾸준히 강화훈련을 실시, 태권체조부문에서 소년부 정은희 외 9명, 청년부 김현호 외 8명, 여성부 김순단의 8명, 여성부 종합격파 부문에서 윤수원선수가 각각 결승에 진출, 5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들을 지도해 온 정현도 사범은 충남태권도의 명문 당진송악고교와 경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출신으로 대학시절 선수로서 활약한 바 있으며, 태권도 심판 및 사범자격증, 경



지도자 자격증을 모두 갖춘 매사에 적극적이며 예의바른 모범지도자로 충남협회 사범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창작품새 2연패를 달성한 정현도사범은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더욱 더 연구, 노력하여 내년에 기필코 대회 3연패와 품새왕

으로 선발되겠다는 각오를 보였 다.

금산비룡체육관은 금산태권도의 열악함 속에서도 올 충남도지사기 대회에서 고등부와 여자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 2관왕이 되기도 하였다.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태권도 소식

서 제31회 전북협회장기 단체전 및 개인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였다.

국교부, 중등부, 고등부, 여중부, 여고부, 일반부 경기로 펼쳐진 이번 대회의 최우수 선수상은 함열국민학교 전병철이 영예를 안았다.

▲우수선수상: 임정환(군산남국교), 문경준(군산동중학교), 한성희(태인중교), 박선화(홍덕중학교), 강경무(원광대학교)

▲지도상: 나운용(군산남국교), 손도철(군산동중학교), 김동일(홍덕중), 김경환(태인중교), 이명기(원광대학교)

(부별 우승자 명단)

▲국교부: 황경호(전주동북), 김운형(군산남), 최봉만(소룡), 김두호(군산), 권세환(군산남), 서광진(군산남), 전병철(함열), 김준형(군산남), 최우주(대야), 강재권(함열), 손정우(정읍남성)

▲중등부: 박성철(군산동), 이영석(함열), 유대성(고창), 송성택(군산동), 박기정(군산동), 김성은(배영), 문경준(군산동), 라현(옥구서), 강진욱(전주), 김용일(옥구서), 박봉희(소양)

▲고등부: 장영주(함열), 이재성(배영), 이재호(태인중), 이길도(배영), 한성희(태인중), 박재훈(태인중), 홍지웅(군산동), 김현범(고창)

▲여중부: 이은경(군산서국교), 정애진(송광국교), 하선민(홍덕중), 정다운(군산중앙여중), 이신자(변산서중), 김이레(감곡

중), 박선화(홍덕중), 오복순(소양중), 박상미(김제여중), 조양희(김제여중), 김우경(홍덕중)

▲여고부: 김자이(근영), 박진희(군산중앙), 이연숙(부안), 김수정(고창), 임봉숙(부안)

▲일반부: 정희갑(원대), 이명한(원대), 정춘택(전북대), 최환성(원대), 강경무(원대), 최한경(원대), 김윤상(전주대), 배원형(중앙체육관)

(단체우승)

국교부: 군산남국교

중등부: 군산동중학교

고등부: 태인종합고등학교

여중부: 홍덕중학교

일반부: 원광대학교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전북협회는 10월 16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94년도 5차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50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합격자수는 1품 651, 2품 265, 3품 50, 1단 291, 2단 175, 3단 48, 4단 14, 5단 6명이다.

미국 태권도협회 방문

93년 10월 미국 유니버대표 및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 친선경기를 가졌던 전라북도협회가 94년 두번째로 회장, 임원 및 선수가 미국 태권도협회의 초청을 받고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태권도협회를 방문했다.



▲ 시상하는 유기대회장

초청기간 중에 빙햄튼 주립대학 체육관에서 개최된 뉴욕주지사배 대회에서 전북선수 12명이 출전해 미국팀을 10:2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인들은 태권도에 대한 예의, 태도 등 교육이 매우 잘 되어 있었으며 태권도대회 기간 중에는 태권도인들 모두가 축제분위기에 휩싸여 매우 열광적이었다.

2000년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태권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호감을 가지고 태권도를 주목하고 있었으며 한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뉴욕주지사배 대회기간 중 9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 8코트에서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모두가 질서 정연하며 심판관정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전북협회에서는 95년 2월 15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리는 미국 U.S 오픈대회에 주니어 10체급, 시니어 6체급에 참

가할 예정이며 뉴욕협회에서는 95년 6월 24일 전북협회를 내한할 예정이다.

(전북 정 철 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제11회 회장기 대회 개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단체 19팀, 개인 113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여천서국교와 여수중이 부별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

▲초등부 : 이승재(여천서국), 김명진(여천서국), 김남형(여천서국), 강승민(여천서국), 고준영(목포동국), 이제현(여천서국), 박진호(여천서국), 고 훈(화산국), 박태우(군포남국), 이종현(현산남국), 백병조(백수서국)

▲중등부 : 한혜진(이수중), 염도승(여수중), 김종성(여수중), 정원식(보성중), 정민석(이수중), 박희철(여수중), 정우열(여수중), 정길용(서면중), 서대원(여수중), 이기선(노안중), 홍현옥(여수중)

제15회 도지사기 대회 개최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제15회 도지사기 시군대학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치열한 접전 끝에 종합 우승은 나주군, 2위 영광군, 3위 목포시가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 : 유창호(영광군), 전수옥(영광군), 김민표(나주군), 정상근(나주군), 양재한(나주군), 장종오(영광군), 최승길(영광군), 양희경(나주군)

제19회 학생종합체육대회

금년 한해 동안의 전남체육을 마무리하는 제19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태권도 경기는 11월 9일 순천남국민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체급별 우승자 : 이명석(별량중), 남윤해(별량중), 문진혁(유달중), 박윤신(여수중), 이승훈(여수중), 임선식(여수중), 이규도(여수중), 정 훈(광양중), 민대홍(금성중), 김덕중(별량중), 박영삼(석교중)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11월 27일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썰썰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756명이 참가하여 748명이 합격하는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품단별 참가인원은 1품-353명, 2품-121명, 3품-20명, 1단-136명, 2단-78명, 3단-24명, 4단-10명, 5단-6명이다.

또한 12월 11일에는 동부지구 심사가 여수전남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개최

전남협회는 12월 17일 94년

태권도 소식

이사회와의 95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안전으로는 94년 사업보고 및 결산, 95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 94년말로 감사 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사 선출에 대한 안전이 상정되었다.

태권도인의 밤 개최

전남협회에서는 12월 17일 평소 전남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과 전국체전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상위임상의 영광을 안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태권도인의 밤을 개최하고 한해를 마무리하였다.



각종 지부대회 개최

▲10월 8일

제9회 고흥군 교육장기타기 태권도대회(고흥 녹동국교)

제6회 순천시 교육장기타기 태권도대회(순천 팔마실내체육관)

제14회 목포시협회장기타기 초·중·고·여자부 단체 및 개인 태권도 선수권대회(목포상고)

제21회 여수시 태권도협회장기

타기 태권도대회(여수 남국민학교)

▲10월 15일

제21회 영암군 태권도 회장기타기대회(영암군 실내체육관)

▲10월 16일

제1회 여천시 태권도협회장기 전남대회(여천 홍국실내체육관)

▲12월 18일

제3회 영광군 협회장기타기 태권도대회(영광 실내체육관)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 한현영 편집위원〉

경상북도협회

도지사기 대회, 영천시 우승

제6회 도지사기 시군 단체대항 대회가 9월 15일 내외 귀빈과 많은 태권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대회는 5명 단체전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118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시, 군의 명예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대회의 우승팀에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30만원, 2위는 20만원, 3위는 10만원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우승: 영천시, 2위: 영일군, 3위: 청도군

제31회 경북학도 체전 개최

경북 교육청은 제31회 경북학

도 종합체육대회를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구미에서 개최하였다.

경기장 관계로 태권도는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중등부 90명, 고등부 69명 등 총 159명이 출전한 가운데 태권도 종목과 분리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중등부: 1위 영천시, 2위 영일군, 3위 포항시

고등부: 1위 영천시, 2위 포항시, 3위 상주시

종합성적: 1위 영천시, 2위 포항시, 3위 상주시

최우수 선수 선발대회

경북태권도협회는 94년도 각 종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들이 출전해 부별 최우수 선수와 체급별 최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대회가 초등부 89명, 중등부 81명, 일반부(고등부통합) 80명, 여자부 28명 등 총 278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실내체육관에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열렸다.

이날 박종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과거 여러분의 선배들이 쌓아올린 금자탑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할 시점에 있는 여러분의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출전선수들의 선전을 당부했다.

▲부별 최우수선수: 이동호(용상국민학교), 이광훈(영천중학교), 최봉준(경북체육고등학교), 정문숙(고명여자고등학교)

승품단 심사 2193명 합격

경북협회는 9월 23일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219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1230명, 2품 462명, 3품 80명, 1단 255명, 2단 83명, 3단 55명, 4단 24명, 5단 4명이다.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경상남도협회

제10회 교육감기 대회 개최

경남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남 체육회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0회 경상남도 교육감기 시·군 교육청 대항초, 중등부 태권도 대회가 마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1월 16, 17일 이틀동안 열린 이 시합에는 초등부가 19개 시·군 교육청에서 186명이, 중등부는 22개 시·군 교육청에서 191명 등 모두 37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겨루었다.

이순달 회장은 대회사에서 “서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우리의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음은 위대한 한국인의 승리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부터 태권도 가족 모두는 새로 시작한다는 겸허한 마음 자

세로 종주국의 막중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신학 경상남도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으로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은 물론 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 말과 문화를 다시 한번 세계속에 소개할 계기가 되었다”며 태권도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부별 우승자 명단)

▲중등부: 강리성, 박병렬, 김원태, 이재호, 정용수, 김대환, 강영현, 유홍섭, 노기중, 천희라

▲초등부: 김완재, 이희성, 김익중, 조인호, 최호준, 김정수, 김의수, 김명국, 서강진, 안종오

(종합성적)

1위: 울산시 교육청

2위: 창원시 교육청

3위: 마산시 교육청

4위: 김해시 교육청

12월 승품단 심사 실시

경남협회는 1994년도를 마감하는 제119 경남 승품단 심사를 지난 12월 4일 마산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승품단 심사에는 1품 886명, 2품 1,124명, 3품 221명 그리고 1단 438명, 2단 208명, 3단 106명, 4단 38명, 5단 11명 등 총 5,032명이 응시하였다.

특히 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75회 전국 체전에서 입상한 경남 대표 선수들에게 장학

태권도 소식

금과 포상 격려금이 지급되었다. 수혜자의 명단과 장학금 및 격려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선수 장학금 및 포상금)

▲고등부: 승진식(경남체고/동메달) - 장학금, 포상금 120만원

▲대학부: 박재완(경상대학교/동메달) - 장학금, 포상금 120만원

▲일반부: 지재기(상무/은메달) - 포상금 55만원

정주석(상무/금메달) - 포상금 75만원

(지도자 포상금)

김광년(경남체고 감독 - 20만원)

강진홍(경상대학 감독 - 20만원)

황영갑(상무 감독 - 80만원)

(경남 김성실 편집위원)

제주도협회

제75회 전국체전 참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대전직할시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제주대표 선수단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였다.
(입상자 명단).

- 이광석(고등부 플라이급 2위/남주고등학교)
- 고재필(고등부 편급 3위/남주고등학교)
- 김 용(일반부 편급 3위/제주도태권도협회)
- 강승수(일반부 헤비급 3위/상무)
- 박경숙(여자부 라이트급 3위

/경희대)

유단자 친목 단합 체육대회

제주도 태권도 유단자회(회장 김두은)에서는 회원들의 상호친목과 단합을 위해 '94년 10월 15일 제주시 응담동 레포즈 공원에서 친목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원로들은 옷놀이를 하였고 관장, 사범과 태권도 유단자 회원들은 족구와 배구로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두은 회장은 전국체전출전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면서 선전을 당부하였고 제주도 태권도 발전에 공이 많은 관장들에게 감사패를 수여 하였다.

(감사패 수상자)

- 최철영(술 체육관)
- 이동희(희망 체육관)
- 오석중(상무 체육관)

(제주 김동훈 편집위원)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총재 GAISF 회장 재선

김운용 IOC 부위원장 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지난 10월 23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끝난 국제경기단체 총연합(GAISF) 총회에서 2년 임기의 회장에 재선되었다.

이로써 김운용총재는 1986년에 GAISF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5선 회장으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내년도 GAISF 총회는 10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국기원

3차 고단자 심사 44명 승단

국기원은 9월 24일 6~9단 고단자 승단심사를 실시하고 61명의 응심자 중 44명의 고단자를 배출했다.

단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 6단 33명, 7단 4명, 8단 5명, 9단 2명이다.(합격자 명단은 행사기록에 게재)

사범 교육 199명 합격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8기 사범교육 및 생활체육지도자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234명의 수강생이 매일 8시간씩 12일간의 교육을 받아 이중 199명이 사범 자격을 획득하였고 생활체육교육지도자 과정 수료자들은 자격 검정 시험을 거쳐 문화체육부장관 발급 3



▲ 2급 경기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한편 제8기 사범 교육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교육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제8기 사범 교육 합격자 명단은 행사기록에 게재)

2급 경기지도자 교육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은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하여 태권도 발전은 물론 한국체육발전을 기하기 위해 태권도 4단 및 사범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2급 경기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강의실 및 경기장에서 실시된 2급 경기지도자 교육은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일 8시간씩 21일간 총 128시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연수교육 수료자들은 12월 20일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자격 검정시험을 거쳐 문화체육부장관 발급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교부되는데 합격자 명단은 1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제20기 2급 경기지도자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은 행사기록에 게재) **태권**

“특활시간에 배운 태권도 솜씨, 가을 운동회 때 뽐내”



조규섭 교장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계기로 광주에도 태권도붐이 일고 있다. 광주시 서구 월산동에 위치한 농성국민학교.

2500여명의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마음껏 뛰노는 학교이다. 농성국민학교는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즐거운 학교건설」이라는 취지아래 20년전인 1974년에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만 2천여명의 어린이들이 꿈과 용기를 배워 나갔다.

문학, 예술, 과학, 체육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있는 농성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실력에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산실임을 느낄 수 있다.

학교마다 교기가 있지만 농성국교의 육성종목은 씨름과 육상이었다. 씨름종목에서는 소년체전 단체 입상, 전원 광주대표라는 좋은 성적을 나타내었고, 육상에서도 광주시대회 종합우승을 하는 등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었으므로 그 동안 태권도 교

육에 대한 관심은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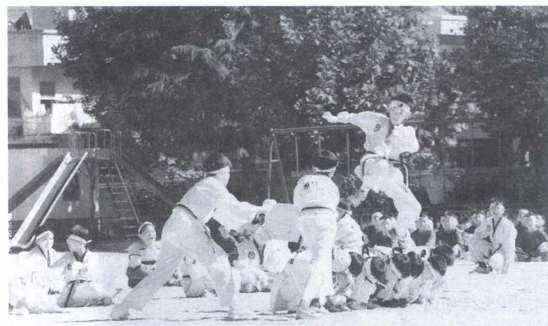
그러나 93년 3월 조규섭 교장 선생님이 제 8대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많은 국난과 외침을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힘과 지혜로 극복해 온 정신적 근간이 되어 온 태권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학교 옆에 있는 전남체육관 19도장 이인천 관장은 체육담당 교사와 상호 협조하여 우선적으로 6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의 기본자세부터 지도해 나갔다.

학생들은 체육관에서 수련하는 유품자들의 보조를 받아가며 맨땅에서 구슬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모습에 처음에는 냉담했던 학부모들의 반응도 점점 변화되어갔다. 하루 하루 수련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활습관이 눈에



▲가을운동회에서 많은 박수를 받은 태권도 시범 모습

띄게 달라져 갔기 때문이었다. 약하고 소심한 어린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띄약별 아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녀들을 보고 태권도 교육에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94년 9월,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라는 감격스러운 소식을 접하면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뿌듯한 마음과 함께 자부심이 생겨

났다.

이인천 관장은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가을운동회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로 하고 매일 방과후까지 체계적인 시범훈련을 시켰다.

9월 30일, 화창한 가을 하늘아래서 흰도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태권도 묘기가 나올 때마다 수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

가녀린 주먹과 발차기에 의해 기와가 깨어지고 송판조각이 하늘 높이 치솟을 때 함성도 함께 울려 퍼졌다. 이 시범을 지켜본 교장선생님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전교생들에게 점차 태권도 교육을 확산시켜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를 배우게 하고, 선수들을 육성하여 2천년대의 꿈나무들을 발굴해 내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농성국민학교의 작은 태권도 축제에서 태권도의 힘찬 발전을 엿볼 수 있었다. **대주**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밤밭골의 태권도 어린이들, 수원 태권도의 주역으로 성장



전규영 교장



신현무 사범

수원 울전국민학교(교장 전 규영)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가 위치한 울전동(밤밭골)에 자리잡고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어린이』라는 교훈아래 1983년 9월 1일 개교이후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천국민학교를 분교시켰다. 울전국민학교는 교장선생님이하 태권도감독이신 박성순 선생님과 전 교직원들이 태권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신현무 코치(현울전체육관관장)의 지도아래 수원에 태권도 명문으로 울전국민학교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신현무 사범은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89년에 태권도 불모지인 울전동에 울전체육관을 개관하면서 울전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해오다 90년도에 울전국교를 경기도태권도협회와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에 정식등록을 필하면서 선수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기 시작했다.

92년도 수원체육회장기 종합 3위, 93년 수원시 종별선수권 종합 3위, 94년 수원시체육회장기 및 태권도협회장기에서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렇게 수원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울전국민학교 태권도부는 93년 전국어린이태권왕 겨루기 대회에서 황희영 1위, 백재현 3위를 하였고 전국국민학교 연맹회장기대회 때에 백재현 1위, 이준상 3위를 하면서 그 여세를 94년도 전국어린이 태권왕 겨루기대회에서 라이트급의 손준길선수가 태권왕으로 선발되었고 KBS 2TV에 녹화방송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점진적인 발전을 보이자 전규영 교장은 95년도 부터는 상설태권도부를 개설하여서 전교생 누구나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의 건강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무 사범이 지도하는



▲ 94년 수원시체육회장기 및 태권도협회장기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 종별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메달을 목에 건 어린이들

울전체육관은 인화단결·상경하에·백절불굴이라는 관훈 아래 예절바른 어린이, 자기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어린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수련목표 아래 수련생들을 지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유단자만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신현무 사범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때에는 직접 국가대표를 배출하여서 금메달의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희망에찬 포부를 밝혔다. **태권**

〈경기 김형호 편집위원〉

학교탐방/경남 울산 우정국민학교



▲ 우정국민학교 태권도부 어린이들이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학교의 명예를 빛냈다.

태권도를 교기로 육성하는 꿈나무의 산실

경남 울산시 중구 우정동 70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정 국민학교는 아침 6시 50분 이면 하얀 도복을 입고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볼 수 있다.

우정 국민학교는 태권도를 교기로 육성하고 있다. 서장이 교장은 기존의 태권도부를 활성화하여 교기로 지정, 인근 우정 체

육관 박성배씨를 지도 사범으로 초빙하여 교기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정 국민학교는 짧은 역사에 비해 태권도로 잘 알려진 학교

이다. 제12회 체육청소년부 장관기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배강수 선수가 2위, 제13회 협회장기 전국 어린이 태권도 대회에서 박한춘 선수가 2위, 제7회 경상남도 교육감기 대회에서는 울산시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3체급을 1위로 입상시켜 종합 2위로 부상했고 울산시 교육장기 태권도 대회에는 92, 93, 94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좋은 결실뒤에는 우정 체육관 박성배 사범의 열성적인 노력과 뛰어난 지도력이 숨어 있다. 울산시 우정동에 자리잡고 있는 우정 체육관은 친형인 박구배씨가 관장을 역임하고 있고 동생인 박성배 사범이 태권도를 지도하며 국기 태권도의 보급과 저변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우정체육관은 박성배 사범의 지도아래 울산시 교육장기 태권도 대회 6년 종합 우승, 울산시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 5년 연속 우승, 경남 어린이 태권왕 대회에서 2년 연속 핀급 태권왕 차지, 제8회 경남 어린이 태권왕 대회에서 3체급이 1위, 3체급이 2위를 입상하는 실적을 올렸다. 한편 금년도 경남 도민체전에서

울산시 대표 선수들을 많이 발굴, 육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진해에서 해군에 복무중인 김태진 선수는 제3회 국방부 장관기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해군 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2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도 우정 체육관 출신의 많은 선수들이 각종 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남 태권도 협회의 베트남 순방단에 참여하여 시범을 보이기도 한 박성배 사범은 현재 경남 태권도 협회에서 심판위원과 심사위원을 맡아 협회 활동 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제자 우부열 사범과 함께 태권도 도복대리점도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수익금의 일부를 꿈나무 태권도 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을 생각이다.

박성배 사범은 『이 시대의 과열된 지식 위주의 경쟁속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태권도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사뭇 어린이 답지 못한 점이 많고, 또한 운동을 하면 공부를 못한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학교 태권도부 운영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그는 심각하게 말한다.

그러나 태권도인이신 교장 선생님과 태권도를 좋아하는 주위의 많은 교사들 그리고 매번 시합때마다 열렬히 보내주는 전교생들의 박수와 환호가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격려가 되어 태권도 지도 사범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정 국민학교 서장이 교장선생님은 매일 퇴근길에 체육관에 들러 태권도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서 교장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꼭 참관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며 학교 체육주임도 태권도장에 들러 선수들의 용기를 불돋아 준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인해 우정 체육관 박성배 사범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도 그는 땀에 젖은 꿈나무들의 도복을 정리하면서 우정국민학교 태권도 부원들의 장래가 밝게 빛나길 기원한다. **태권**

〈경남 김성실 편집위원〉

2천년 시드니올림픽의 주역이 되기 위해 뚝다



박우인 교장

호원의 도시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곡선중학교는 1989년 개교 이래 3회에 걸쳐 1949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였다.

「참되게, 바르게, 슬기롭게」라는 교훈과 함께 국가와 겨레를 사랑하는 애국인, 생각이 깊고 이치에 밝은 과학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실력인, 마음이 곱고 예절바른 교양인,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인이라는 교육목표에 뜻을 두고 70명의 교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다.

특히 박우인 교장은 『태권도는 무도로 덕을 쌓는 운동으로 인간성 함양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태권도를 육성하고 있다.

곡선중학교 태권도부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 태권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까지는 92년 창단과 함께 심일섭 감독

교사와 전임 오상운 코치(경희체육관 관장)가 태권도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진양성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은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임 오상운 코치는 경희대학교, 국군체육부대에서 선수 활동을 하였으며 94년도에는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하여 풍부한 선수 경험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신생팀을 지도하여 단 시일 내에 정상급으로 성장시켰다.

그후 현임 김경환 코치(경희대학교 졸업, 인천체육고등학교 코치 역임)를 영입한 이래 더욱더 팀을 육성, 발전시켜 오고 있다.

곡선중학교 태권도 유망주는 3학년 이상혁, 서종원, 정수화, 김태균, 이현희, 박진원 2학년 박성규, 배경환, 안효설, 김태식, 임상덕 1학년 이종호, 이지훈, 박동필, 박인용, 윤원중 등



▲ 수원시협회장기 대회에서 3연패를 거둔 곡선중학교

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각종 대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들이다.

그동안 곡선중학교는 93년 소년체전 최종 선발전에서 서종원 선수가 페더급에서 우승한 것을 시작하여 94년 경기도 학도대항 대회에서 이상혁(라이트미들), 김태균(웰터) 우승, 94년 경기도 협회장기에서 박성규(핀급) 선수가 우승을 차지 하였으며 수원시 교육감기 3연패, 수원시 협회장기 3연패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면서 수원 중학교 팀 중에서 선봉적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미 올해 졸업생은 고등학교 장학생으로 진학이 예정 되어있어 남은 재학생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심일섭 감독



김경환 사범

특히 학교장의 태권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새로이 태권도 전용 체육관이 완공되어 태권도부원들은 매일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태권도부원들은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심일섭 감독선생님의 취지 아래 전 학과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3시간 이상 강도 높은 훈련으로 기술 습득과 향상에 힘쓰고 있다.

곡선중학교 태권도부는 앞으로 있을 각종 대회에서 한층 더 성숙된 기량으로 태권도의 선두 주자로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앞으로 있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여 주었다. **태권**

〈경기 김형호 편집위원〉

태권가죽



201 향원





아버지는 바보

글 • 안장환
그림 • 이향원



아침부터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솜사탕처럼 큼직한 눈송이가 하늘 가득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지난번 첫눈 때는 떡가루같은 차진 눈이 약간 내려서 길바닥이 질척거리고 미끄럽기만 하더니, 12월도 다 저물어가고 있는 이 무렵에 푸짐하게 눈은 내리고 있었다.

직장으로, 학교로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없는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다. 오전 내내 집안 일을 끝내고 오후가 돼서야 한가한 시간을 맞은 양여사는 창가에 서서 눈이 내리고 있는 풍경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집안은 너무도 조용해서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양여사는 그렇게 한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얼마 되지 못한다. 어둑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먹여서 공부를 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을 보든가 뜨개질을 하며 남편 준호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겨울 밤은 빨리도 어두웠다. 여름철의 이 시간 같으면 해가 중천에 있을 텐데 벌써 날은 캄캄하게 어두워 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저녁식사를 하자 공부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 또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했다. 이런 때면 양여사는 무섭도록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준호씨는 매일 늦었다. 오늘도 술타령을 하는 모양이었다. 원체가 술을 좋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12월로 접어들면서부터 술자리를 하는 일이 너무도 많았다. 회사에서 단합대회다, 동창회다, 망년회다, 하루도 걸르는 날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도 늦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또 무슨 모임이라는 핑계를 댈 것이 뻔했다. 시계를 쳐다보았다. 열두시가 가까와 오고 있었다. 양여사는 뜨게 질하던 것을 밀어놓고 일어났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 마중이라도 나가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우산을 찾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제 눈송이는 작은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눈은 다음날 아침은 푸근하다는데 내일 아침은 쌀쌀할 것 같았다. 양여사는 우산을 받쳐들고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걸어내려갔다. 바람이 차기는 했지만 멍하게 무겁던 머리가 시원했다. 거의 골목길을 다 내려갔을 때였다. 저만큼 흐릿한 외등 밑으로 준호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반가웠다. 양여사는 담뱃에 서서 기다렸다. 그는 눈을 함뿍 맞은 채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다.

“여보!”

준호씨가 깜짝 놀라며 양여사를 바라보았다.

“아니, 당신 어디가는 거야?”

“가긴 어딜 가요, 당신 마중 나왔지.”

양여사는 손으로 준호씨의 어깨에 얹혀있는 눈을 털며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는 사뭇 놀라는 표정이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당신이 마중을 다 나오다니? 여보, 우리 오늘 밤은 눈을 맞으며 걸어 볼까? 이 낭만적인 밤을 말야.”

준호씨는 그렇게 말하며 한손으로 양여사의 허리를 가볍게 껴안았다. 그러나 양여사는 낭만적일 수가 없었다. 집안에만 혼자 들어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면 속이 상했다.

“홍, 낭만 좋아하시네. 밖에서 술마시며 실컷 놀다가 늦게 들어와서는 미안하지도 않아요? 빨리 들어가거나 해요.”

양여사는 토라진 목소리로 말하며 준호씨를 잡아끌었다. 그들은 말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양여사는 뚫어오르는 화를 참느라고 애를 썼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집안에서는 큰소리를 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술이 취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준호씨는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는 동안 생각했다. 자기는 언제나 그놈의 술 때문에 아내에게 구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남편으로서, 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가족들에게 위엄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게 된다. 새해부터라도 집안의 규율을 정해놓고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각오였다. 그러니 오늘은 밤이 늦었더라도 식구들을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보, 지금부터 가족회의를 해야겠으니 식구들을 모아요.”

세수를 하고 나온 준호씨는 위엄있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양여사였



다. 그녀는 꿀물을 타가지고 나와서 준호씨에게 주며 말했다.

“아니, 밤중에 갑자기 무슨 가족회의예요?”

“안되겠어. 새해부터는 온가족이 새로운 각오로 생활해야지.”

“어머나, 당신 아직 술이 안겠어요?”

양여사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나, 술 안취했던 말야. 어서

아이들 나오라고 해!”

준호씨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양여사가 당황하며 달려가서 아이들을 나오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여사는 별일이라는 듯이 빙긋웃으면서도 준호씨의 눈치를 살폈다. 아이들과 양여사는 소파에 모여앉았다. 준호씨는 큰기침을 한번 하고는 위엄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그동안 반성한 일인데, 새해부터는 안되겠어요. 내가 가장으로서 너무 했다는 걸 알아요. 나부터 새해에는 술을 딱 끊고 열심히 일할테니 우리 가족 모두가 부지런해야 돼요. 당신은 바가지 굵는 버릇을 고치고, 너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이불은 자기가 개고, 방 청소도 깨끗이 하고, 알았지?”

“아빠, 그건 너무해요. 우리는



학교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작은 아이가 그렇게 항의를 하고 나섰다.

“안되긴, 하라면 하는 거야.”

“그래, 아빠가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회의를 열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잔말 말고 지키도록 해라.”

양여사는 그렇게 준호씨를 옹호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새해부터는 술을 딱 끊

고 정신을 차리겠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양여사는 날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던 것이다. 양여사는 정초 연휴 동안을 웃는 얼굴로 즐겁게 가족들을 대했다. 그리고 다시 새해의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준호씨가 첫 출근을 한 날이었다. 양여사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놓고 준호씨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늦는 것이었다. 새해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 하며 편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양여사는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계속 뜨게질만 하다 시계를 보니 열두시가 가까와오고 있었다.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웬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래서 그녀는 준호씨 마중을 나가기로 했다. 두꺼운 외투를 걸쳐입고 대문을 나서는데 바로 옆 담월에 누군가 시키면 그림자가 기대어 서있었다. 그를 살펴보던 양여사는 그만 질겁을 하고 놀랐다. 준호씨였다.

“아니, 당신 여기서 뭘해요?”

“여, 여보, 미안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서...”

“아이구, 정말 대책이 안선다니까? 그래, 안들어오고 밖에서 잘거예요?”

양여사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준호씨를 벌떡 떠밀었다. 그러자 그가 뒤로 넘어지며 눈위로 주룩 미끌어져 내려가는 것이었다. **태권**



작가 · 안장환

충북 충주출생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196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문단 데뷔

한국소설문학상 수상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수상

박영준 문학상 수상

한국문학상 수상

〈주요 작품〉

창작집 : 일렁이는 강물/ 안개강/ 서울타령

장편소설 : 사계의 안개/ 인형의 도시/ 12인의 하숙생/ 밤마다 소낙비/ 날마다 축요일/ 약의 꽃/ 바람의 연인/ 겨울새/ 배반의 그늘/ 방황하는 섬들/ 정선아리요 등.



초대하는 사람, 초대받는 사람의 일반적인 기본 매너는?

초대하는 경우

식사 또는 파티 등에 손님을 초대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유의해서 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손님을 초대하는 편에서는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초대장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초대장에는 초대 의 뜻을 간결하게 알리고 전화나 서신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내용이나 실내장식·실내온도 등은 주빈의 연령이나 취미·기호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이 오면 코트나 소지품을 받아둘 곳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에는 손님의 이름이 명시(明示)된 네임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손님이 쉽게 자기 자리

를 찾아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손님 수대로 특색있게 만들어 하나씩 식탁 옆에 놓고 원하는 사람은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은 현관까지 나가서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손님이 오면 별실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하고, 안면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서로 인사를 하도록 주선·소개하여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잘 지키고 간혹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빈이 도착하면 제 시간에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대를 하는 사람은 의복을 청결·단정하게 하고, 사전에 접대에 익숙하도록 잘 연습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나를 때 음료류는 손님의 오른편 뒤에서 따르고, 요리는 손님의 왼편 뒤에서 권하며, 또 빈 그릇은 왼쪽에서 가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과일이나 빵은 손님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를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이나 접대하는 사람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손님의 불편한 점이나 특히 원하는 점이 없는지 표나지 않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은 부드럽고 즐거운 화제로 식사 분위기를 잘 리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준비한다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즐거움과 뜻깊은 자리로 추억을 간직하게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삼가야 할 행동]

- 초대시 너무 목적성이 드러나 보이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 손님에게 너무 무리하게 음식을 권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서비스 과잉은 오히려 실례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주석이 마련될 경우 과음하지 않도록 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에 대한 상담이나 구두약속을 하는 것 등은 삼가야 합니다.
- 적당한 여흥시간을 마련하되 너무 혼자 기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초대받는 경우

여러 가지 모임이나 행사로 인해 식사 모임 또는 파티 등에 초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받아서 가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데, 이를 잘 알아서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모임 등에 초대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불안감을 갖고 참석하게 되면 즐거움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등에 초대받으면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참석 여부를 알려 초대할 사람이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초대할 목적에 따라서 꽃이나 가벼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초대받은 손님이나 초대된 시각에 따라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화장이나 옷차림을 하되, 언제나 우아하고 교양있는 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초대된 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주인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소개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구석에 묵묵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갈 때 모자나 코트·술 등 겉옷은 옷을 맡기는 곳에 맡기고 핸드백이나 장갑만 소지하면 됩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나 의자에 앉을 때는 여성이 우선입니다. 대기실이나 식당 입구에 좌석표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잘 눈여겨 보았다가 자기 자리를 쉽게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핸드백이나 소지품은 식탁 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아 두면 됩니다. 소지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식탁 위에 올려 놓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참석하면 즐거운 모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삼가야 할 행동]

- 자신의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주석에서는 과음을 하지 않으며 제멋대로 주문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과도한 사양은 오히려 실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특히 흡연·하품·트림·이쑤시게 사용 등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식사 도중의 전화통화는 되도록 삼가야겠고, 아주 급한 경우에는 좌중에 양해를 구한 뒤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태안**

※ 본 내용은 이명환씨의 「이럴뎌 어떻게」(21세기북스 간행)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태권도에서 도의 철학적 이해

태권도를 비롯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동양무술은 동양사상의 핵심 단어인 ‘도’와 결부되어 무도라는 말을 만들게 되었다.

‘도’는 노자와 장자사상 즉 도가(道家)의 중심사상이지만 불가와 유가에 까지도 널리 쓰인다.

원래 한자인 ‘도’라는 글자는 길(Way), 도로 또는 당위원칙을 뜻한다.

‘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노자는 도를 우주근원이며 시원이라 하였다. 도는 무형의 신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정신능자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할 수 있는 도는 신체적 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한비자는 해로편에서 ‘도는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도리의 비방(秘方)이다’라고 하였다.

도의 어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 측면 즉 한자와 우리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道)는 (=)와 머리 수(首)를 합친 모습이다. 一은 一으로 쉬엄쉬엄 가는 것을 뜻하며 卜은 길을 때 한 팔이 뒤로 빠져나온 몸체를 그린 것이요 맨아래 八은 걸어가는 앞발과 뒷발의 모습이다. 여기에 머리 수가 붙어 있다.

즉 걸어가면서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와같이 ‘도’는 생각과 실천을 함께 담고 있어 ‘도’는 바로 실천적 본질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말에서 ‘도’의 어원은 우리말의 ‘돕다’(Dop-ta)와 그 어원체계를 같이한다. 유가의 사서오경 전부가 도와주고 도움받는 ‘도’(Do)의 사상체계이므로 도는 돕다의 그 말뜻이 근본적으로 같음을 알 수 있다.

유교경전 곳곳에서 해치고 죽이는 것은 비도(非道)라 하고 있고, ‘도’가 행해질 때는 천하유도(天下有道),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천하무도(天下無道)라 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렇게 볼 때 ‘도’는 곧 단군사상의 핵심인 홍익인간의 도이다.

단군의 홍익인간은 크고 넓게 사람을 도운다는 뜻이다. 단군의 홍익인간의 이념은 바로 ‘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인간이 인간다운 숭고한 정

태권이 몸(신체)이라면 '도'는 일상의 정신, 마음이고 태권이 동(動)이라면 '도'는 정(靜)에 해당한다. 신체는 가시적이나 정신, 마음은 불가시적 대상이어서 태권이 형이하학적 개념이라면 '도'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신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함을 뜻한다.

한민족은 도를 통해 우주의 실체와 본질까지도 뿌리째 연구하기 위해 탐구하고 구명하고자 했다.

'도'에 대한 해의는 다양하다. 우리가 '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정의>와 같은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태권도는 우리고유의 무도로서 전통사상인 단군사상, 유불선(유교, 불교, 선교) 3교 등 역사의 문화적 배경에 이념적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에서 인간존중의 정신 즉 무예정신의 함양이 중요한 학습과제가 되어야 한다.

동양사상은 인간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닌 통합된 전체라는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출발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권도를 수련한다고 할 때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을 전제한다. 결국 마음(정신)과 몸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도적 태권도의 개념은 심신이 하나가 되는 심신일여(心身一如)사상과 동정일여(動靜一如)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본능에서 출발하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심신일여를 성취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의 수행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태권도는 태권과 도(道)의 만남이 시작에서 완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태권도는 태권과 '도'로서 인간이 의당 행하여야 할 도리이다. 태권이 몸(신체)이라면 '도'는 일상의 정신, 마음이고 태권이 동(動)이라면 '도'는

정(靜)에 해당한다. 신체는 가시적이나 정신, 마음은 불가시적 대상이어서 태권이 형이하학적 개념이라면 '도'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또한 태권이 포괄적인 실천, 행위라면 '도'는 그에 대한 직관이다.

그러므로 태권도 수련은 대내적 직관(마음)과 대외적 실천(몸)을 요구한다. 우리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심신의 계기능을 평균적 정상성에서 정상 이상의 수준까지 높여가는 작업에 의해 인격의 향상과 완성을 지향하고 이것이 바로 '도'의 실천적 행위이다. 태권도에서 '도'가 의미하는 모든 길은 심신의 제능력의 전체적 통일의 핵심이 되는 인격 중심의 완성이라는 도정에 연결되는 것이다.

태권도에서 '도'의 철학성은 손발의 기술체계를 심신에 의한 경험(수련, 겨루기, 경기 등)을 통한 행위적 직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

태권도는 무도로서 자연과 조화 또는 합일하여 정신적 집중력, 자아통찰, 심신합일 등을 지향하며 신체의 전체부위를 순리에 따라 연마하는 동양적인 자기 체형적 자각교육이며 전인교육이다.

태권도와 같은 동양운동형식의 주된 요점은 스스로 수행하는 '체합'에 있다. 수련을 통한 신체활동이 건강, 신체단련, 경기 등 목적에 묶인 조건적 행위로써가 아니라 그 활동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만끽하고 존재내면에 깊숙이 파고 들 수 있는 행위, 직관에 몰입할 때 '도'(태권도)의 철학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태권도**

* 동양의 인간이해, 중국철학 연구회 편저(형설출판사)

태권도 철학의 본질에 관한 연구

STEVEN D. CAPENER/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태권도의 양적인 발전은 다른 투기 스포츠종목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실로 놀라운 것이다. 3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전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에서 태권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볼 때 태권도는 여전히 그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잔존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화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철학적 가치 부재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권도는 현재까지 두가지 측면의 의미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나는 한국의 전통적인 무술로서의 정체성 추구이며, 다른 하나는 경기 스포츠로서의 발전과정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파생된 스포츠적 가치와 외교적 측면의 가치에 따른 수단적 가치의 양적인 팽창이다.

해방이후 일본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공수의 근대적 기술체계, 수련방법 그리고 도개념의 철학적 체계를 받아들이고 이용하던 태권도의 1세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2세대 지도자들이 일본 공수도의 허울을 벗기 위하여 태권도의 독자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태권도를 경기화함으로써 이를 한국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발전되어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해방후부터 60년초 까지 국내에서

일본의 개념에 따른 무술로, 즉 생존원리일 뿐만 아니라 건강원리, 또 예술의 측면에서 태권도는 토착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형태가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년간 1차 세계화 단계를 거쳐 국외로 보급되었다. 반면에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한태권도협회의 새로운 세계화의 전략은 무술이 아닌 스포츠, 즉 경기로서의 태권도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태권도를 재편성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내에서는 경기태권도에 치중하면서 외국에서는 이 두가지, 즉 무술적 태권도와 스포츠적 태권도의 양쪽의 형태들을 지향하여 수련자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이원적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두가지 형태는 태권도의 정체성을 두가지 형태로 되게 하였으며, 결국 철학성과 교육성이 정립되지 못한채 경기 태권도는 양적으로만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요컨대 태권도의 전통성 회복과 독자적인 기술체계의 개발은 태권도의 경기화와 세계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국내 태권도의 급속한 발전과정 및 그 결과는 놀라운 외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잠재적으로 수련을 중심으로 하던 것이 겨루기로 전환된 이래로 경기태권도의 잠재적 철학성과 교육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나 학문적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는 결국 태권도 철학의 부재와 태권도의 인간교육적 가치의 결핍이 야기되고 말았다.

따라서 태권도에는 다음 두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태권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태권도의 수련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다. 다시 말해서 태권도가 무술이나 스포츠냐에 관한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태권도가 태권도의 주류를 이룬다면 경기태권도의 철학성과 교육성을 밝히기 위한 학문적 활동과 그 결과가 없다는 문제이다. 태권도가 스포츠 성격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 의미는 간과되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적 성격이 일으키는 문제점만이 거론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태권도의 스포츠적 성격을 규명한 학문적 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권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 본질과 수련방법이 파악되어야 한다. 태권도가 겨루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수련 체계라면, 예술적, 스포츠적 본질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근거와 그 수련 방법에서의 내재성을 밝힐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태권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태권도의 수련체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의 예술적 성격과 철학적 가치를 조망함으로써 양분된 경기태권도와 소위 전통태권도의 철학적 양립성과 공통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중요성

오늘날 태권도철학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철학에 대한 확실한 정의나 개념의 정립이 태권도와 인간이라는 보편적개념에 근거하여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철학적 탐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태권도는 더이상 한국인의 것만이 아니며 한국인의 가치체계에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서양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확립해야 하며 이러한 보편성의 확립은 당연히 철학적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가 인간교육 과정으로서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지고 발전되어야 하며 지난 동안 왜곡되었던 무술에 대한 기본인식이 시정되어야 한다. 무술의 원시적

개발목적인 실재적 살상력을 요구하는 전투술은 근대 문화사회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스포츠는 공개성과 보편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계가 이 스포츠의 특성이 제시하는 인간형성과정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태권도의 보편적인 교육성을 확보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연구의 출발점으로써 태권도 철학 자체가 학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되고 있다.

보편적인 독자적 무도스포츠로 뿌리를 내린 태권도의 학문성의 확립은 중요하며 더욱이 이러한 학문성의 확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태권도가 이러한 연구의 부재에서 오는 정체성 논란과 관련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문으로서의 방향성 제시가 시급하며, 이것은 결국 철학적인 근거위에 성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문적 방향성과 철학의 확립은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와 성격 그리고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의 학문성이 추구하여야 할 새로운 파라다임의 원형을 제시하여 태권도의 건강한 학문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태권도의 현황

태권도는 한국내에서 출현 발전되었고, 그 다음의 발전 단계에서 태권도의 성격이 결정되었다. 그 발전과정에서 일차와 이차 지도자들의 불일치한 발전 목적과 그들의 태권도 역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오늘날 태권도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1945년부터 1959년까지는 일본당수의 유입으로부터 일대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1945년 해방과 함께 귀국한 일본 유학생들 중 당수를 익힌 이들에 의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당수 보급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어 닥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그 보급은 중단되었고 당수 지도자들 중 일부는 입북 또는 실종되었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였다.

1960년대는 갈등과 전환의 시기로서 무도계가 양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많은 갈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유파간의

세력경쟁과 일본에서 수련했던 세대와 국내에서 수련한 세대와의 마찰이 주요인이 되어 태권도의 경기화와 한국화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한 의견차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당수를 유입하여 보급시킨 1세대 지도자들이 1967년 대한태권도협회의 집행부 개편을 계기로 완전히 일선에서 물러나게 됨으로써 국내에서 수련한 2세대 지도자들이 한국태권도를 이끌어가게 된 것이다. 이들은 1세대 지도자들에 비하여 당수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었다. 2세대 지도자들이 태권도를 경기화하고자 시도하였던 결정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태권도 자체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들은 태권도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당수도의 굴레를 극복하여 한국 무술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하는 시도으로써 스포츠의 기본적인 규칙을 접목시킴으로써 경기화 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후 겨루기를 통한 시합중심의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무술들이 가지는 공격과 방어의 평면적 차원을 넘어서는 반격의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타무술의 추종을 불허할만한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둘째, 무술의 수련은 거품에 대한 요구를 필연적인 것으로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보다 실전적 형태에 가까운 겨루기의 형식을 무술의 연습체계의 하나로써 발전시키고자 하는 보다 근원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로 인하여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양의 무도철학이 서양의 체육철학의 큰 조류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게 된 것이다.

한편 태권도의 경기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을 무렵 태권도가 안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와 수련방법의 철학적 오류는 이러한 태권도의 외형적 확산에 가리워져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다. 그 당시 한국의 체육계는 서구 스포츠의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을 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체육의 가치를 동양의 신체활동의 개념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재의 체육의 모습도 한국인의 신체문화 전승이 단

절된 채 사대주의적 신체문화 풍토가 만연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한국 태권도계나 체육계가 서구의 잘 조직화된 근대성을 동양적 신체활동 문화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하는 내적인 성찰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태권도의 경기화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현재 팽배해 있는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의 스포츠의 모습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와 근본적으로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신체문화에 동양의 무도가 유입되어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현재의 태권도의 모습을 고찰해 볼때 서양의 스포츠적 성격이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동양무도에 서구의 신체문화가 유입된 실례로서 태권도의 경기화 자체가 그것이고, 서구의 학문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태권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그것이다. 동양의 무술은 선불교, 유교, 요가 등의 광범위한 동양문화권 내의 철학에 기반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서양의 체육문화와는 상이한 발전과정과 철학적 배경에서 확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술, 무예, 무도로의 개념적 변천과정과 그 의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술의 실전적 형태에서 교육적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태권도 또한 스포츠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인 경쟁적 요소까지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현재 서양의 체육에 동양의 무도철학과 그 문화를 받아들여 서양의 체육이 안고 있는 철학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 이상과 같이 서양의 스포츠와 동양의 무도가 서로의 운동문화를 주고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을 고찰해 보는 것은 차후 태권도계가 지향하여야 할 가치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선택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Ⅲ. 태권도의 철학적기반과 독자성의 문제

1. 태권도의 철학적 모습

무술이 術에서 道로 변화하는 과정은 16세기의 일

본 검술의 경우에서 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일본의 Abe Gorodaiyu(1668)가 검술이라는 용어 대신에 검도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Abe는 수련방법에 있어서 단지 실체적 기술을 획득하기 보다는 정신적 도덕적 교육을 강조하였다. 결국 이 시대의 수련에서 나타나는 철학적 개념들이 이전의 실천에 근거를 둔 무술 이념이 약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무술에서 무도로의 변화는 단순한 전투술을 익히는 것에 인간의 근대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합리적, 논리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의 무술계에서 이 무술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라는 개념을 한국 근대무술에 접목하게 되는 데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태권도는 그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함과 부조화로 인하여 철학성에 대한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다. 앞에서 지적 했듯이 해방이후에 한국 태권도의 계통을 증명하기 위하여 태권도의 원형, 즉 일본에서 唐手道の 유입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태권도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고수하였다. 그러면서도 가라테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급격하게 경기화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결국은 두가지 형태의 태권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내에서 보다 외국에서 심각하다.

일단 Martial Art 라는 말을 살펴 보면, 태권도가 겪는 논리적 모순성의 원인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태권도를 경기태권과 이른바 전통태권도로 이분화시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도란 용어가 영어권에 있어서는 무술, 무예, 무도 모두를 Martial Art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Martial Art 라는 용어는 동양적 개념의 武道의 뜻을 지닌다. 그러나 수련의 방법이 스포츠가 아닌 무도적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고 전통성과 철학성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게 된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외사람들은 외국 수련자들에게 이런식의 개념을 심어 주었다. 이러한 경향의 근원으로는 무도라는 말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태권도를 동양 철학의

신비성으로 적당히 포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전통성과 철학성을 따져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앞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과 “철학”이란 말을 같이 연결하여 태권도의 “전통적 철학”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부담감 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무엇인가가 있나보다’라는 신비성을 부각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떠한 전통의 체계와 철학의 체계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 우선 이 무도라는 개념은 그 기원이 명백히 일본이며 또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무술계는 이점을 인정하기를 회피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는 무도의 바른 이해와 진정한 자기화를 가로막을 뿐이다. 이 사실은 명백히 태권도의 전통성을 설립하는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문제의 해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태권도의 철학적 기반의 문제다.

2. 태권도의 정통성과 독자성

조선시대 말기의 崇文肱武사상의 영향 때문에 일제시대에 와서도 한국에는 맨손투기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태권도의 계통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웠던 태권을 보면 태권도와 아무런 기술적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954년의 명칭제정 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태권도 수련방법은 당시 일본에서 행하던 가라테의 수련방법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그때의 태권도의 지도자들은 가라테와 구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동기에서 1950년대말과 1960년대초의 태권도가 태권도의 기술적 구조에 대하여 실험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때까지의 수련방법은 일본의 가라테와 구분을 할 수 없었으며 품새(형; 型)중심이었고 겨루기도 일본식으로 실행하였다.

바로 이점에서 태권도는 더욱 가라테에서 벗어나야 했으며 이를 위한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가라테의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음의 요소들은 아주 중요하였다.

1. 가장 긴급한 것은 새로운 기술체계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원래 일본 가라테의 기술 체계는 손기술

들에 근거하기 때문에 태권도는 새로운 기술로써 발 기술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2. 일본 가라테의 전통적인 수련의 방법은 형과 소위 약속겨루기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태권도가 일본의 무술 수련 방법에서 이미 채택된 이러한 방법이 아닌 '자유겨루기'식의 새로운 기술발전 과정을 밟기 시작하였으며 가라테와 뚜렷이 구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독자적인 발전을 위하여 타무술이 추종하기 어려운 발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호쾌하고 위력적인 타격경기를 목표로 태권도 경기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경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겨루기 방식에 있어서 가라테와 다른 특유의 독자성과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제심판강습회 교재(WTF, 1990, pg.38)에 의하면

1. 주먹, 얼굴 공격의 제한
2. 허리 이하 부위의 공격제한
3. 잡아넘기기의 제한
4. 호구착용을 조건으로한 직접 타격의 허용
5. 타격의 실제적인 위력을 중심으로한 기술의 평가기준(득점제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은 60년대 초까지 다른 무술의 경기 방식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개변이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태권도의 겨루기, 경기방식의 적용은 태권도가 한국적 형태를 찾아 한국적인 정통성을 발굴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태권도가 태권화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김용옥에 의하면

1. 태권은 손기술 중심이 아니라 발기술 중심의 기예이다.
2. 태권은 무술이 아니다. 즉 싸움과 같이 적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가해적 기예가 아니라 놀이 즉, 놀음이나 유희의 행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구도적이며 비공리적이다.
3. 그 전체적 성향이 방어기 중심이 아니라 공격기 중심이다.

이러한 점들은 태권이라는 해방이후의 수입된 무술이 토착화되고 자연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태권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틀로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태권도의 토착화 과정에서

외래에서 유입된 무술적 행위가 조선민중의 몸짓속에 내재된 전형적인 몸짓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경기화는 정지된 기술적 개념을 넘어서 규정된 틀속에서 새로운 기술체제와 수련방법이 자유롭게 발전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겨루기 중심으로의 전환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태권도를 일본 가라테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전투술 혹은 자기방어술과 같은 무술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이 새로운 겨루기의 방식에서 나오는 공격·방어·나중 공격식의 연속성과 기술적 상호작용성은 다른 무술들이 따라갈 수 없는 태권도 특유의 기술적 본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무술에서 찾을 수 없는 태권도의 고유성, 정통성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태권도의 기술적, 철학적인 구조의 틀을 정립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태권도의 경기규칙, 특히 금지행위와 득점제도로 결정되는 겨루기 방식은 태권도의 수련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여기에서 태권도의 구조적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무술을 도라고 칭하려면 수련방식에서 내재된 철학적 가치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가치가 수련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음에는 수련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철학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IV. 태권도의 철학적 의미

태권도에 내재된 철학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중심이 경기적 겨루기로 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태권도의 중심이었던 호신술이라는 투기술의 위치를 전환시켜야 한다.

결국 어떤 무술이나 무도의 철학성이 그 무술의 기술과 수련방법, 즉 무도의 기술을 제도화함과 의식화함에서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무술이나 무도의 기술적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기술을 수반하는 철학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태권도가 경기화 되면서 이러한 실제적인 철학적 한계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게 되었지만 호신술이 태권도의 궤

상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화 된 겨루기의 철학적 타당성과 잠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1. 겨루기 기술체계의 의미

태권도는 경기화됨으로써 겨루기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동시에 가라테의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기술들의 창조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 사회의 변화와 부합하면서 오히려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태권도 수련의 기술적 목표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태권도 경기에서의 승패는 실제적 격투 또는 무술의 우열로써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승패를 가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경기에서의 승패란 기본적으로 규정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정확하고 강한 타격을 누가 더 많이 적중시켰는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의 기술철학은 다음과 같은 겨루기의 요소들에게 발견할 수 있다.

가) 성취성

태권도의 기술은 겨루기 도중에 상대에게 그 기술을 성공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기(혹은 공식적 경기 아닌 겨루기)에서 규정이 정한 득점부위를 효과적인 기술로 정확하게 타격하여 기술의 위력을 상대에게 전달한 것이 기술행의 점수로 인정될 정도이면 그 기술이 완성된 것으로, 즉 본래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품새에서나 다른 “약속”된 수련에서 나타나는 기술은 결국 목적론적 제약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술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 이 제약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항하는 상대가 필요한 것이 다.

나) 상대성

겨루기에서의 전략전술까지를 포함하는 기술의

주고 받음의 매개가 바로 상대성인 것이다. 겨루기의 방식으로 결정된 기술체계는 공간과 시간의 허실을 원리로 한다. 그리고 이 시공의 허실과 순환하는 관계 흐름을 매개하는 것이 상대성이다. 따라서 상대가 없는 수련으로는 기술의 극상에 이를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상대성은 인종적, 성적, 국가관적인 요소들 밖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술을 통하여 포괄적인 태권도 문화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다) 완벽성

겨루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속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절함으로써 완전한 경기의 운용이라는 상황미학(situational aesthetic)과 거의 오감을 조절하는 느낌미학(Aesthetic of feeling)이라는 예술의 차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완성된 경기의 가능성은 태권도의 경기방식에서 결정된 기술체계가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겨루기의 기술적 균형 때문인 것이다. 이 기술적 균형을 공격·반격·되공격의 체계에서 볼 수 있다.

경기방식에 의하여 득점이 이루어져도 양상대가 지속적으로 기술을 운용하기 때문에 순간 순간 완벽한 기술을 운용 계속적인 경기의 진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완벽한 경기 운용의 가능성 자체라고 생각된다. Espisito에 의하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특색 있는 것이 ‘가능성의 경험’이라 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들은 그런 경험에서 인간이 속세, 가치, 죄책감, 사랑 그리고 죽음의 이해의 근원으로 본다. Heidegger의 Being and Time에서 지적하는 것은 실제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이성만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생존 보존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예술 즉, 인간의 예술 차원에서는 인간은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몸으로 행하여지는 예술적인 행위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인간의 예술을 통하여 혼돈을 질서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질서란 기술의 완벽한 운용으로

격렬한 겨루기 속의 무질서를 정돈하는 것이며, 완벽한 작품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다. 겨루기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잠재적 완벽함을 찾는 것은 인간이 그 완벽함의 실존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과 그 인식의 실천으로 인간의 정신은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전의 자신을 초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Esposito는 “개인에게 스포츠가 자신의 초월함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에게 스포츠가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자신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성공 혹은 실패의 감정을 창출한다. 이러한 성공 혹은 실패의 감정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겨루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2. 경기의 의미

태권도 고유의 수련형태는 겨루기를 통해서 기술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인데 경기는 이 형태의 일부이다. 그렇지만 경기는 규칙, 채점체계, 운영 방법 등 일정한 구조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의 발전된 기술적, 조직적, 구조적 수준은 이러한 경기의 특성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겨루기는 경기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그러나 태권도 구조의 근대화는 서양스포츠의 틀인 경기를 이용하기에 이르렀고 겨루기의 예식화, 의식화 그리고 사회화 하는 과정으로서 태권도 특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모든 놀이 혹은 경기의 특징은 개개인의 표현과 연출이다. 개개인은 경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기를 함으로써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재확인한다.

공통의 가치들은 문화의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는 언어를 필요로 한다. 태권도 경기라는 의식 속에서 보편적인 언어(겨루기의 기술체계를 통하여 각각 다른 사유, 풍습, 언어를 지닌 인간들이 서로 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경기를 통하여 인간을 분별하는 특징들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달성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태권도의 겨루기와 경기를 통하여 일반생활에

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신적, 기술적 극치를 경험할 수 있으며, 동양철학의 도 개념에 따라 인생의 일부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태권도 수련 과정의 이상이다.

태권도 경기야말로 태권도의 특유한 문화의 바탕을 마련하며 이 문화의 동일한 가치가 태권도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의 생리적, 정신적 위험에 맞서서 양자가 같이 그런 시련을 나눔으로써 자아개선과 인격 도야의 과정을 제시하게 된다.

V. 결 론

태권도가 경기화되는 과정에서 그 수련 방법은 겨루기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그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겠다.

첫째, 태권도가 경기화를 통해 겨루기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태권도의 정통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태권도가 새로이 창조한 기술체계와 겨루기 방식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새로운 겨루기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때문에 태권도는 태권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기술적 본질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수도와는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과 정통성으로 정착되었다.

둘째, 태권도의 중심인 경기적 겨루기는 태권도에 내재된 철학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태권도 기술의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태권도의 기술을 동반하는 철학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이전의 피상적이며 추상적인 태권도의 철학적 주장과는 다른 실제적 수련과 철학적 가치가 동시에 살아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모습은 태권도의 이론과 실천이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공생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태권도가 경기적 겨루기의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현재의 태권도는 스포츠의 보편성과 학문적 연구 대상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무술의 기반은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의 목적은 공허한 수행이 아니라 상대에게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기술의 극상의 목적이다. 근대 사회에서 치명적 자기 방어술을 이용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술을 완벽하게 반복하여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태권도의 겨루기 수련방법과 경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한다. 이것은 정신적 생리적 위협을 무릅쓰고 기술의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창조력, 기량, 그리고 노력을 요구한다. 겨루기를 할 때 이 세가지의 합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

절할 수 있는 힘을 가져온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순한 생존보다는 한차원 높은 삶의 가치를 겨루기의 완벽성이란 요인에 의하여 예술적 행위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태권도의 철학적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학문적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들의 실천을 요구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의 제시로서 본 논문을 시도하였다. **태권**



'94년 9~12월

행 사 기 록

품 세 및 격 파 경 연 대 회

태권도 한마당 '94 (11.26~28, 잠실학생체육관)

올해의 품새상: 성북체육관(한찬옥, 윤송희, 김현우, 이원상, 장영기, 김동현, 최현민, 문상현, 김승환)

손격파왕: 최인수(광주북성중)
발격파왕: 강신철(수원남창체육관)

묘기격파왕: 정윤희(용인대)

(일 반 품 세)

▲소년부

경기 제일체육관(김희부, 우석범, 정상진, 임경섭, 김무연, 김경호, 김승주)

시흥 매화체육관(안병호, 함정수, 이 원, 박진아)

신산국교(권오주, 권은민, 정성호, 이슬기, 김희정)

평화체육관(이신기, 기용호, 황진욱, 이유미, 박진한, 김일배, 홍상훈, 장문규, 최보라)

의정부 세아체육관(왕용성, 오창훈, 이영경)

▲청년부

용인대(이광호, 차 드, 장창영)

체육선교신학교(서주용, 서상우, 김희식)

서울경찰청(김일수, 장홍식, 김민철)

▲여자부

도산체육관(조춘자 외 31명)

광탄종고(민경선, 김옥주, 류정화, 김진영, 이재선, 이지영, 최윤지)

장안체육관(신동선, 신명자, 박민숙, 최경자, 최경숙, 박상진, 김미숙, 차혜순, 이영혜, 이옥순)

이화여대(박민진, 이주희, 남영진, 강신영, 임경순, 이현정)
경희대(곽정현, 김상순, 이희중, 백민선)

(창 작 품 세)

▲소년부

청목체육관(조강재, 김태령, 정효상, 유영재, 서하람, 김중훈)
경복체육관(노태혁, 이화정, 노태영, 조정천, 이민지, 한원영, 한상용, 이호재, 조은영, 이동하)

성북체육관(한찬옥, 윤송희, 김현우, 이원상, 장영기, 김동현, 최현민, 문상현, 김승환)

신우국교(강승구, 신대웅, 전민

구, 조상현, 조백희)

명화체육관(최낙석, 최광수, 황대균, 김세음, 김두호, 정해권, 정태환, 배선옥, 국수열, 김성일)

▲청년부

전남 서면체육관(임병영, 장필호, 김태진, 임병운)

지킴이회(박진교, 박점선, 이강윤, 김기호, 김범신)

충남협회(정현도, 최성운, 김남주, 김백수, 김기용, 김현구, 김진구, 이호상)

경희대(박진석, 현장렬, 김상배, 신인성)

세계태권도선교회(김용귀, 김정옥, 김용욱, 정재호)

▲장년부

서울체육관(박광일, 정재훈, 이인재, 김상훈, 문현식, 박태일)

세계태권도선교회(김희공, 김희도, 김희산, 김희관)

불광간민조기회(김순칠, 진승희, 박봉순, 한철유, 박상범)

▲여자부

용인대(변영희, 김보영, 전희연, 정윤희, 연정현, 김명순, 신혜

진, 길정남, 이희승, 전홍연)
할렐루야체육관(문명희, 최은
주, 김선이, 길정순, 이숙희, 이
정원, 신순애)

(태권 체포)

▲소년부

안양부림국교(김라주, 은현기,
이용석, 김혜진, 김비오, 이정
무, 장한수, 배영훈, 이주현)
연무체육관(최준혁, 윤창훈, 김
채신, 정병호)
경일체육관(이지훈, 진성호, 김
상희, 이해림, 김명희, 이길형,
박성도, 이세용, 김광민)
금산비룡도장(정은희, 임대형,
이 철, 김성수, 유재홍, 강성원,
길정미, 이효정, 김민정, 김기
훈)
화랑체육관(고재호, 정영환, 최
창신, 이종규, 이인한, 이지혜,
김상기, 표재현, 정석필, 이혜
영)

▲청년부

용인대(임문혁, 김성수, 김미선)
금산비룡도장(김현호, 송명재,
심규만, 길준석, 김해성, 이정
우, 김은혁, 김진성, 김상범, 명
주식)
서울 경찰청(안현순, 남궁숙, 정
종현, 권영호, 이승재, 배종옥,
권용섭, 박기범, 안효진)
산성체육관(송영기 外 3명)
문경체육관(조용구 外 9명)

▲여자부

체육선교신학교(손현희, 전인
애, 박소연)
금산비룡도장(김순단, 김양미,
장순미, 김지은, 이상례, 박은
정, 박경자, 길은숙, 명정례)

(손 날 격 파)

▲청년부

문영봉(용인대)
김영우(경희대)
이재구(세계태권도선교회)
곽병만(서울경찰청)

(주 먹 격 파)

▲청년부

이무송(원주 대성체육관)
김진만(백초체육관)
노광엽(경희대)
강창현(경희대)
배형찬(서울경찰청)

▲장년부

채수호(부평 동아체육관)
최인수(광주 북성중)
김기용(성광체육관)
김희삼(수원태권도선교회)
이필호(성산체육관)

(발 격 파)

▲청년부

이덕희(용인대)
전정진(문경체육관)
박재천(북아현체육관)
김 훈(체육선교신학교)
현수남(체육선교신학교)
최창익(해동체육관)
길상배(서울경찰청)
김재수(경희대)
이선우(경희대)

▲장년부

전기복(고산도장)
강신철(수원 남창체육관)
김경찬(지성 경희체육관)

(멀리 뛰어 차기)

▲소년부

현철우(충무체육과)
오종민(북아현체육관)
최광수(명화체육관)
신승규(둔문체육관)
한재호(둔문체육관)
박인철(승일체육관)
김동수(무궁화체육관)
김동진(무궁화체육관)

▲청년부

박상재(한일체육관)
송희탁(대구 한일체육관)
이근천(성산체육관)
홍석표(경희대)
신경식(경희대)
손주홍(경희대)
김용귀(세계태권도선교회)

(높이 뛰어 차기)

▲소년부

김세움(명화체육관)
장윤준(신흥체육관)
임민석(신한국체육관)
임재호(광탄중)
하상우(장안체육관)

▲청년부

문선태(문경체육관)
최성훈(경희체육관)
유은수(용인대)
정재련(경희대)

(종 합 격 파)

▲소년부

배선옥(명화체육관)
정형준(명화체육관)
이용웅(광탄중)
정성호(신한국교)
최삼열(할렐루야체육관)

▲청년부

김주섭(용인대)

박준성(용인대)
길상배(경희대)
최규완(세계태권도선교회)
정재환(정스 태권도장)

▲여자부

김명희(영광체육관)
전인애(체육선교신학교)
정윤희(용인대)
김상순(경희대)
윤수원(금산비룡도장)

(외국인부)

▲일반품새

독일(Britte Karrasch 외 2명)
중화대북(Chiang Chia Jung 외 5명)
미국(Todd Dorr)

▲창작품새

호주(Kelvin Ha 외 7명)
일본(Koshijuka Hiroshi 외 9명)
중화대북(Wang Tzu-Cheng 외 3명)

▲태권체조

중화대북(Chen Yi Wen 외 3명)

▲손날격파

싱가폴(Koh Chee Liang)

▲주먹격파

중국(전철하)

▲발격파

일본(장명삼)
우즈벡스탄(Kim Alexcqnдр)
호주(David Crossley)

▲높이뛰어차기

프랑스(Philippe Le Borgne)
호주(Alex Farcas)

▲종합격파

(소년부)
중화대북(Chiao Hung Tu)
중화대북(Chang Tien Yung)
중화대북(Wang Tzu Cheng)
(청년부)
프랑스(Guy Friess)
중화대북(Cliang Chih Jung)
중화대북(Chen Wei Hsin)
중화대북(Li Chih Wei)
중화대북(Kao Chun Chieh)
(장년부)
캐나다(하기성)
(여자부)
중화대북(Ni Yi Ling)

국내대회

제75회 전국 체육 대회
(10.28~11.1, 대전 다목적 체육관)

(고등부)

▲핀급

1위 : 서상훈(천안농업고)
2위 : 마천국(광양고)
3위 : 고재필(남주고)
김형구(청주기계공고)

▲플라이급

1위 : 장진혁(금정고)
2위 : 이광석(남주고)
3위 : 소준용(대전체고)
박희철(선인고)

▲밴텀급

1위 : 강성권(서울체고)
2위 : 김 현(인천체고)
3위 : 이원호(강원체고)

박광룡(대전체고)

▲페더급

1위 : 이준희(대성고)
2위 : 강정구(여수고)
3위 : 강윤민(대전체고)
변영광(충북체고)

▲라이트급

1위 : 박문수(성동고)
2위 : 장동혁(대전수산고)
3위 : 진천수(대전체고)
김부권(광주체고)

▲웰터급

1위 : 류근무(대전체고)
2위 : 고성식(충남체고)
3위 : 장영삼(순천공고)
송진식(경남체고)

▲미들급

1위 : 김한규(인천북공고)
2위 : 김기동(대전체고)
3위 : 이준수(강원사대부고)
이동훈(영천고)

▲헤비급

1위 : 차용희(동성고)
2위 : 차상영(충남체고)
3위 : 김현호(청주신흥고)
문용철(인천체고)

(여자부)

▲핀급

1위 : 최한솔(상명여대)
2위 : 이정윤(신갈고)
3위 : 최영아(청주여상)
이신영(인천체고)

▲플라이급

1위 : 최재숙(용인대)
2위 : 차진희(새일고)
3위 : 강선경(상명여대)
윤버들(국체고)

▲밴텀급

1위 : 이선영(송곡고)
2위 : 조재영(배정여상)
3위 : 황정은(백제여상)

전영식(천안여고)

▲ 페더급

- 1위 : 이승민(경희대)
- 2위 : 장은정(강원체고)
- 3위 : 차춘희()
윤명숙(상명여대)

▲ 라이트급

- 1위 : 박정희(한국체대)
- 2위 : 전기숙(인천북공고)
- 3위 : 김영희()
박경숙(경희대)

▲ 웰터급

- 1위 : 조항미(경희대)
- 2위 : 김소연(경성여고)
- 3위 : 채수진(혜성여고)
정미화(조선대)

▲ 미들급

- 1위 : 우연정(새일고)
- 2위 : 박은선(경희대)
- 3위 : 김현정(군산중앙여고)
송지수(인천체고)

▲ 헤비급

- 1위 : 정명숙(경희대)
- 2위 : 정혜옥(인천체고)
- 3위 : 박정숙(용인대)
최숙희(함백여고)

(대학부)

▲ 핀급

- 1위 : 진승태(한국체대)
- 2위 : 최만용(한국체대)
- 3위 : 소병관(경희대)
김태호(청주대)

▲ 플라이급

- 1위 : 고동완(한국체대)
- 2위 : 정주철(충남대)
- 3위 : 박재완(경상대)
유영택(용인대)

▲ 밴텀급

- 1위 : 김건일(계명대)
- 2위 : 이임수(동아대)
- 3위 : 조진호(한국체대)

김종운(경희대)

▲ 페더급

- 1위 : 유용진(동아대)
- 2위 : 양재철(한국체대)
- 3위 : 김정호(경희대)
김태훈(계명대)

▲ 라이트급

- 1위 : 고창현(조선대)
- 2위 : 천현옥(경원대)
- 3위 : 정광채(한국체대)
신경수(청주대)

▲ 웰터급

- 1위 : 김경훈(한국체대)
- 2위 : 양원철(청주대)
- 3위 : 정재균(한국체대)
이진우(성균관대)

▲ 미들급

- 1위 : 이동완(한국체대)
- 2위 : 김원식(조선대)
- 3위 : 강동국(동아대)
빙원철(한국체대)

▲ 헤비급

- 1위 : 김정규(경희대)
- 2위 : 최원집(동신대)
- 3위 : 안성주(충남대)
서정규(경원대)

(일반부)

▲ 핀급

- 1위 : 정영길(상무)
- 2위 : 이만식(대구협회)
- 3위 : 김지운(광주협회)
김 룡(제주협회)

▲ 플라이급

- 1위 : 배상철(지하철공사)
- 2위 : 김대훈(동구청)
- 3위 : 한지환(전남협회)
유성호(보령군청)

▲ 밴텀급

- 1위 : 서성교(춘천군청)
- 2위 : 지재기(상무)
- 3위 : 윤희준(상무)

박재성(영천시청)

▲ 페더급

- 1위 : 김현철(상무)
- 2위 : 성대중(춘천군청)
- 3위 : 함 준(전북협회)
조성호(대구협회)

▲ 라이트급

- 1위 : 강재원(전남협회)
- 2위 : 정용진(전북협회)
- 3위 : 김성진(동구청)
손원기(대구협회)

▲ 웰터급

- 1위 : 김민우(동구청)
- 2위 : 최재복(경기협회)
- 3위 : 강창모(부산시 체육회)
이종학(대구협회)

▲ 미들급

- 1위 : 성주석(상무)
- 2위 : 공두환(경기협회)
- 3위 : 하태경(춘천군청)
박상노(인천협회)

▲ 헤비급

- 1위 : 이현석(부산시 체육회)
- 2위 : 박세홍(지하철공사)
- 3위 : 이광섭(대구협회)
강승수(상무)

'94년도 전국 남녀 우수
선수 선발대회
(11.15~17, 국기원)

(남자부)

▲ 핀급

- 1위 : 지진성(한체대)
- 2위 : 최만용(한체대)
- 3위 : 정현철(리라공고)
진승태(한체대)

▲ 플라이급

- 1위 : 최용훈(동아대)
- 2위 : 석운용(용인대)
- 3위 : 김건일(계명대)
이기철(개교고)

▲ 밴텀급

- 1위 : 조진호 (한체대)
- 2위 : 김남수 (송곡고)
- 3위 : 장대순 (한체대)
정충민 (한성고)

▲ 페더급

- 1위 : 김인동 (풍생고)
- 2위 : 김정호 (경희대)
- 3위 : 김현철 (상무)
안홍엽 (용인대)

▲ 라이트급

- 1위 : 정광채 (한체대)
- 2위 : 이동주 (풍생고)
- 3위 : 손효봉 (충남대)
이태민 (송곡고)

▲ 웰터급

- 1위 : 장종오 (용인대)
- 2위 : 박종상 (지하철공사)
- 3위 : 심기선 (경희대)
김동민 (한체대)

▲ 미들급

- 1위 : 박종범 (상무)
- 2위 : 빙원철 (한체대)
- 3위 : 최승길 (용인대)
함명수 (영북중고)

▲ 헤비급

- 1위 : 김광수 (한체대)
- 2위 : 강승구 (상무)
- 3위 : 박정태 (계명대)
최원집 (동신대)

(여자부)

▲ 핀급

- 1위 : 양소희 (한체대)
- 2위 : 김보인 (김제북고)
- 3위 : 이정윤 (신갈고)
장정은 (송곡고)

▲ 플라이급

- 1위 : 박현기 (고양중고)
- 2위 : 강선경 (상명여대)
- 3위 : 유수진 (경희대)
박미연 (태원고)

▲ 밴텀급

- 1위 : 오은하 (고양중고)
- 2위 : 황은숙 (상명여대)
- 3위 : 원선진 (경희대)
정현주 (송곡고)

▲ 페더급

- 1위 : 윤명숙 (상명여대)
- 2위 : 이지은 (리라공고)
- 3위 : 이승민 (경희대)
이선희 (고양중)

▲ 라이트급

- 1위 : 강해은 (경성여실고)
- 2위 : 박경숙 (경희대)
- 3위 : 박정희 (한체대)
이해경 (고양중고)

▲ 웰터급

- 1위 : 조향미 (경희대)
- 2위 : 신은정 (용인대)
- 3위 : 김은이 (경희대)
조미례 (리라공고)

▲ 미들급

- 1위 : 박은선 (경희대)
- 2위 : 임병은 (태원고)
- 3위 : 우연정 (새일고)
신경현 (문산중고)

▲ 헤비급

- 1위 : 정명숙 (경희대)
- 2위 : 김윤경 (경성여실고)
- 3위 : 서정화 (리라공고)
추수연 (용인대)

**제15회 문체부 장관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
(11.2~3, 국기원)**

(남자부)

▲ 핀급

- 1위 : 이찬희 (강원 호반)
- 2위 : 신영민 (성남 금광)
- 3위 : 임한중 (경기 마장)
김명진 (전남 여천서)

▲ 플라이급

- 1위 : 김남형 (전남 여천서)
- 2위 : 최영락 (경기 서릉)
- 3위 : 김상엽 (충북 서원)
이영목 (대구 아양)

▲ 밴텀급

- 1위 : 이은성 (경기 서릉)
- 2위 : 박승섭 (경기 마장)
- 3위 : 주태승 (경기 태평)
강승민 (전남 여천서)

▲ 페더급

- 1위 : 양재호 (경기 부림)
- 2위 : 문호석 (인천 관교)
- 3위 : 류영하 (서울 문성)
노병주 (경기 서릉)

▲ 라이트급

- 1위 : 이재현 (전남 여천서)
- 2위 : 오성윤 (대구 아양)
- 3위 : 채승호 (서울 광희)
이신화 (경기 마장)

▲ L·웰터급

- 1위 : 신영근 (충북 서원)
- 2위 : 손준길 (경기 울진)
- 3위 : 이민규 (강원 호반)
한경수 (안양 석수)

▲ 웰터급

- 1위 : 홍석도 (서울 광희)
- 2위 : 최대식 (서울 문성)
- 3위 : 김상준 (경기 서릉)
한상룡 (경기 검단)

▲ L·미들급

- 1위 : 임지광 (서울 광희)
- 2위 : 박상현 (대구 아양)
- 3위 : 김재현 (서울 면목)
최왕섭 (경기 마장)

▲ 미들급

- 1위 : 구원석 (경기 성주)
- 2위 : 정의범 (경기 서릉)
- 3위 : 강문보 (성남 왕남)
김희수 (경기 풍양)

▲ L·헤비급

- 1위 : 김봉수 (서울 신곡)

- 2위 : 김현중(서울 면목)
3위 : 이창경(대구 아양)
심우창(대구 아양)

▲ 헤비급

- 1위 : 김민석(대구 아양)
2위 : 차봉석(서울 광희)
3위 : 최민주(경기 검단)
차동선(안양 석수)

(종합성적)

- 1위 : 서울 광희국민학교
2위 : 전남 여천서국민학교
3위 : 대구 아양국민학교
✱ 최우수 선수상 : 홍석도
(서울 광희국민학교)

(여자부)

▲ 핀급

- 1위 : 전일량(경기 태평)
2위 : 정지영(인천 개흥)
3위 : 이은혜(경기 양평)
김희은(성남 금광)

▲ 플라이급

- 1위 : 주민영(경기 태평)
2위 : 황은선(경기 이천)
3위 : 이주희(안양 석수)
오윤미(전남 여천서)

▲ 밴텀급

- 1위 : 황경애(경기 양정)
2위 : 진효순(강원 소양)
3위 : 양영애(전북 송광)
최원애(안양석수)

▲ 페더급

- 1위 : 김보배(강원 소양)
2위 : 한지혜(경기 광릉)
3위 : 박선아(경기 광릉)
서연주(서울 광희)

▲ 라이트급

- 1위 : 함미란(경기 양정)
2위 : 김미지(안양 석수)
3위 : 최지은(전남 여천서)
김윤지(강원 소양)

▲ L·웰터급

- 1위 : 박민정(서울 광희)
2위 : 지초아(강원 치악)
3위 : 김민희(경기 광릉)
정애진(전북 송광)

▲ 웰터급

- 1위 : 장은숙(경기 설봉)
2위 : 주선미(경기 석수)
3위 : 유희선(전북 송광)
심희연(경기 검단)

▲ L·미들급

- 1위 : 김아롱(경기 이천)
2위 : 박효정(안양 석수)
3위 : 이연경(강원 치악)
김혜미(경기 광릉)

▲ 미들급

- 1위 : 김옥순(경기 광릉)
2위 : 김희영(충북 서원)
3위 : 전민정(강원 치악)
정은하(경기 검단)

▲ L·헤비급

- 1위 : 이은선(경기 광릉)
2위 : 노미정(안양 석수)
3위 : 홍선영(강원 소양)
김현순(전북 송광)

▲ 헤비급

- 1위 : 정혜경(안양 석수)
2위 : 최민경(강원 호반)
3위 : 우연화(서울 상수)
김현아(경기 광릉)

(종합성적)

- 1위 : 경기 광릉국민학교
2위 : 경기 석수국민학교
3위 : 강원 소양국민학교
✱ 최우수 선수상 : 이은선
(경기 광릉국민학교)

제20회 연맹회장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

(11.2~3, 국기원)

(남자부)

▲ 핀급

- 1위 : 김완재(경남 봉림)
2위 : 권혁만(부천 신흥)
3위 : 손병철(충북 서원)
김동성(강원 근화)

▲ 플라이급

- 1위 : 박태웅(부천 신흥)
2위 : 최준호(성남 제2)
3위 : 임홍규(충북 서원)
고정희(서울 마천)

▲ 밴텀급

- 1위 : 이호석(성남 제2)
2위 : 이태리(강원 근화)
3위 : 박민열(강원 우산)
백봉현(서울 남천)

▲ 페더급

- 1위 : 고팡희(서울 남천)
2위 : 김남영(강원 우산)
3위 : 문관철(서울 거여)
이상철(강원 근화)

▲ 라이트급

- 1위 : 이 준(경기 신일)
2위 : 이승건(서울 남천)
3위 : 박동석(성남 수진)
서대석(인천 개흥)

▲ L·웰터급

- 1위 : 박재영(강원 근화)
2위 : 강정록(경기 덕소)
3위 : 박언수(안양 석수)
김창영(경기 선택)

▲ 웰터급

- 1위 : 김근식(경기 홍왕)
2위 : 김종식(성남 단대)
3위 : 김성관(부천 신흥)
유창용(전남 범 성포)

▲ L·미들급

- 1위 : 김진옥(성남 제2)
2위 : 김신기(부천 신흥)
3위 : 강태웅(경기 신산)
장민영(충북 문의)

▲ 미들급

- 1위 : 정지원(성남 제2)

- 2위 : 서상림(부천 신흥)
3위 : 김태현(경기 신산)
김두일(경기 금촌)

▲ L · 헤비급

- 1위 : 김일구(강원 근화)
2위 : 정영환(강원 우산)
3위 : 이 웅(경기 신일)
최정민(서울 강덕)

▲ 헤비급

- 1위 : 강호웅(강원 우산)
2위 : 이승훈(경기 양정)
3위 : 김태순(서울 강덕)
손중석(경북 지산)

(종합성적)

- 1위 : 성남 제2 국민학교
2위 : 강원 근화국민학교
3위 : 경기 신흥국민학교
* 최우수 선수상 : 김진옥
(성남 제2 국민학교)

(여자부)

▲ 핀급

- 1위 : 임미혜(성남 제2)
2위 : 임양은(경기 덕소)
3위 : 배주영(대구 수창)
백진아(경기 도창)

▲ 플라이급

- 1위 : 김혜진(경기 부림)
2위 : 배성원(서울 강덕)
3위 : 김혜숙(경기 신산)
이고은(대구 수창)

▲ 밴텀급

- 1위 : 이지연(경기 신일)
2위 : 이 원(경기 도창)
3위 : 임상희(대구 수창)
하희진(경기 신일)

▲ 페더급

- 1위 : 이슬기(경기 신산)
2위 : 강수진(서울 강덕)
3위 : 이해국(경기 도창)
최정애(경기 덕소)

▲ 라이트급

- 1위 : 박수정(수원 세곡)
2위 : 서채화(대구 수창)
3위 : 윤영식(서울 강덕)
심지애(경기 신산)

▲ L · 웰터급

- 1위 : 천보영(경기 길상)
2위 : 강지나(법성포)
3위 : 최혜화(서울 강덕)
강경화(서울 누운)

▲ 웰터급

- 1위 : 배 진(대구 수창)
2위 : 김희정(경기 신산)
3위 : 함현주(경기 길상)
조영진(서울 망우)

▲ L · 미들급

- 1위 : 김용미(성남 중원)
2위 : 김아영(서울 석촌)
3위 : 백선영(경기 신산)
김진아(성남 서)

▲ 미들급

- 1위 : 임정아(경기 신일)
2위 : 안소희(대구 수창)
3위 : 강하나(경기 신산)
김혜란(성남 수진)

▲ L · 헤비급

- 1위 : 권래경(대구 수창)
2위 : 정효정(법성포)
3위 : 윤소정(경기 소재)
김순자(경기 소재)

▲ 헤비급

- 1위 : 민재희(서울 강덕)
2위 : 이정선(대구 수창)
3위 : 유예지(경기 소재)
임희수(경기 이천)

(종합성적)

- 1위 : 대구 수창국민학교
2위 : 서울 강덕국민학교
3위 : 경기 신산국민학교
* 최우수 선수상 : 배 진
(대구 수창국민학교)

국 제 대회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

('94.10.8~9, 히로시마)

(종합성적)

- 1위 : 한국(금4)
2위 : 이란(금1, 은2, 동1)
3위 : 쿠웨이트(금1, 동1)
3위 : 대만(금1, 동1)
5위 : 베트남(금1)
6위 : 요르단(은2, 동2)
7위 : 인도네시아(은2, 동1)
8위 : 일본(은1, 동3)
9위 : 필리핀(은1)
10위 : 말레이시아(동3)
11위 : 사우디아라비아(동2)
12위 : 네팔(동1)
13위 : 우즈베크스탄(동1)

(개인성적)

▲ 핀급

- 1위 : Jung-San Chang(TPE)
2위 : Riyandi Lugi(INA)
3위 : Meneef Aldehani(KUW)
Daisuke Gattoi(JPN)

▲ 플라이급

- 1위 : 진승태(한국)
2위 : Mohamad Sari Zoa'bi
(JOR)
3위 : Man Bahadur Shahi
(NEP)
Mohammed Saddiq
(KSA)

▲ 밴텀급

- 1위 : Quang Ha TRAN(VIE)
2위 : S. Alfons Lung Tekwan
berran(INA)
3위 : Hironobu Yamashita

(JPN)

Ching Beng Wong(MAS)

▲페더급

- 1위 : 김현용(한국)
2위 : Rovbert Vargas(PHI)
3위 : Evgeni Khan(UZB)

Khaled Al-Shamrani
(KSA)

▲라이트급

- 1위 : Fariborz Askari(IRI)
2위 : Hiroyuki Yamashita
(JPN)

- 3위 : Yousef M. K. Abu zaid
(JOR)

Rajendran Rajoo(MAS)

▲웰터급

- 1위 : 정광채(한국)
2위 : Ebrahim Saadati(IRI)
3위 : Jeetender Kumar Rai
(MAS)

Mitsushige Arita(JPN)

▲미들급

- 1위 : Hameed Hasan(KUW)
2위 : Amar Fahed Sbeihi
(JOR)
3위 : Majid Amin Torabi(IRI)
Halim Andri(ISI)

▲헤비급

- 1위 : 김제경(한국)
2위 : Farzad Zarakdshsh(IRI)
3위 : Pao-Yiwu(TPE)
Tawfiq R. T. Nwaiser
(JOR)

제6회 국제 군인선수권대회

('94.9.3~14, 페루 리마)

(종합성적)

▲남자부

- 1위 : 한국(금5, 은1, 동2)
2위 : 페루(금1, 은4, 동2)

- 3위 : 사우디아라비아(금1, 은1,
동1)

- 4위 : 미국(금1, 동3)

- 5위 : 벨지움(은2)

- 6위 : 캐나다(동6)

- 7위 : 러시아(동1)

▲여자부

- 1위 : 미국(금3)

- 2위 : 페루(금1, 은1, 동1)

- 3위 : 캐나다(금1, 은1)

- 4위 : 한국(은1, 동1)

(개인성적)

□ 여자부

▲플라이급

- 1위 : Liza Lopez(CAN)

▲밴텀급

- 1위 : Potter Schileen(USA)

- 2위 : 김정아(한국)

▲페더급

- 1위 : Rivasplata Cavila Eli-
zabeth(PER)

▲라이트급

- 1위 : Evans Elizabeth(USA)

- 2위 : Nathalie Birgentzen
(CAN)

- 3위 : Beltran Nardales Lilia
Patrici(PER)
전은미(한국)

▲웰터급

- 1위 : Ridenour Rachel(USA)

- 2위 : Caberra Orellana Berveli
Yol(PER)

□ 남자부

▲핀급

- 1위 : Abdullah Al-Assri(KSA)

- 2위 : Rodriguez Alvarado Ang-
el(PER)

- 3위 : 정영길(한국)

- Tran Minh Juan(CAN)

▲플라이급

- 1위 : 지재기(한국)

- 2위 : Tanaka Yamasato Joao
Manuel(PER)

- 3위 : Mohammed A. Saddiq
(KSA)

▲밴텀급

- 1위 : 신상준(한국)

- 2위 : Lamas Olmos Cesar
(PER)

- 3위 : Jean Lavoie(CAN)
Kim Bongseok(USA)

▲페더급

- 1위 : 장대진(한국)

- 2위 : Comert Mehmet(BEL)

- 3위 : Morales Berrocal Sergio
Pedro(PER)
Onyon Ronald(USA)

▲라이트급

- 1위 : Perry Reginald(USA)

- 2위 : Bucovaz Rudy(BEL)

- 3위 : Adam Tremblay(CAN)
양춘열(한국)

▲웰터급

- 1위 : 조재춘(한국)

- 2위 : Cavalie Chavez Abel
Antonio(PER)

- 3위 : Nyrton Higgins(CAN)
Cruz-Febo Pedro(USA)

▲미들급

- 1위 : 정주석(한국)

- 2위 : Faisal M. Hakami(KSA)

- 3위 : Melgar Sheen Roberto
(PER)
Andy Ross(CAN)

▲헤비급

- 1위 : Bravo Mejia Gonzalo
(PER)

- 2위 : 박종범(한국)

- 3위 : Martin Kenneally(CAN)
A.Karpov Alexei(RUS)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념 '94 KBS배 국제태권도대회

('94.12.10~11, 장충체육관)

(종합성적)

▲ 남자부

- 1위 : 한국 (금2, 동1)
- 2위 : 이집트 (금1, 동1)
- 3위 : 스페인 (금1, 동1)
- 4위 : 미국 (은2)
- 5위 : 필리핀 (은1, 동1)
- 6위 : 이탈리아 (은1)
- 7위 : 호주 (동1)
- 대만 (동1)
- 쿠웨이트 (동1)
- 러시아 (동1)

▲ 여자부

- 1위 : 한국 (금2, 은1)
- 2위 : 대만 (금2, 동1)
- 3위 : 러시아 (은1, 동1)
- 4위 : 스페인 (은1)
- 5위 : 필리핀 (은1)
- 6위 : 호주 (동2)
- 이집트 (동2)
- 8위 : 헝가리 (동1)
- 이탈리아 (동1)

(개인성적)

▲ 남자 -58KG

- 1위 : GABRIEL ESPARAZA
PEREZ (SPAIN)
- 2위 : STEVEN LEE (USA)
- 3위 : WANG, WEN HUNG
(CHINESE TAIPEI)
CARLO MASSIMINO
(AUSTRALIA)

▲ 남자 -68KG

- 1위 : MAHMOUD SHA-
LABY (EGYPT)

2위 : RAMELITO ABR-

ATIQUÉ (PHI)

3위 : ASLAN GAITAEV

(RUSSIA)

김인동 (한국)

▲ 남자 -80KG

1위 : 장종오 (한국)

2위 : JEAN LOPEZ (USA)

3위 : ULYSSES MARCELIN

O (PHI)

OSCAR S. ORTEGA

(SPAIN)

▲ 남자 +80KG

1위 : 김광수 (한국)

2위 : ROMANO MASSIMIL

IANO (ITALY)

3위 : YEHIA KAMAL (EGY)

WALEED AL-MIRSH

AD (KUWAIT)

▲ 여자 -49KG

1위 : CHEN SHIN HSIN

(CHINESE TAIPEI)

2위 : 박현기 (한국)

3위 : SVETLANA NOS-

KOVA (RUSSIA)

ROBERTO PAR-

ISELLA (ITALY)

▲ 여자 -57KG

1위 : 윤명숙 (한국)

2위 : MA. NELIA SY (PHI)

3위 : MARIANNA ENG-

RICH (HUNGARY)

FATMA GABER (EGY-

PT)

▲ 여자 -67KG

1위 : 조향미 (한국)

2위 : NATALIA SHANA (RU

SSIA)

3위 : REBECCA GITSHAM

(AUSTRALIA)

HSU CHIH LING (CHI-

NESE TAIPEI)

▲ 여자 +67KG

1위 : HUANG, HSIAO-YING

(CHINESE TAIPEI)

2위 : YOLANDA G. AHU-

NNA (SPAIN)

3위 : HELEN FACKRELL

(AUSTRALIA)

AMAL GOMAA (EGY-

PT)

고 단 자 승 단

3차 고단자 합격자명단

('94.9.24, 국기원)

<6단>

서울 : 정지영, 신양승, 전일문,
김종호, 장승원, 박주호,
이성석

부산 : 조 훈, 김홍균, 류인태,
김홍표, 김인하, 최정주

대구 : 이광희, 김정윤

경기 : 강성환, 황재구, 정송인
이시명, 김병호, 정재봉,
김선범

강원 : 신종교

전북 : 탁 현, 이영택, 강동화

경북 : 김진섭, 김수근

경남 : 백운기, 사강수, 윤진용

제주 : 김형우

국군 : 황동춘

<7단>

서울 : 선우진, 최기윤

경기 : 황갑수

충북 : 김창열

<8단>

서울 : 서정복, 김학근

경기 : 김성식, 최국환

해외 : 이문호

<9단>

서울 : 박명수

해외 : 박동근

사범 자격증 획득

제80기 사범교육 합격자 명단

(‘94.9.1~14, 국기원)

서울 : 윤순철, 송좌한, 임경훈,
박성훈, 임성진, 류지현,
송원우, 김용길, 김천호,
이재우, 배종원, 김기철,
김석준, 김성훈, 인한순,
이현우, 김종민, 정일권,
최도한, 노병욱, 김춘성,
서종필, 이양희, 정석문,
김영일, 주우영, 서경원,
황연수, 최기훈, 엄기선,
장민철, 김동광, 양은창,
김영돈, 이동영, 최정근,

윤진철, 최창민, 최한근,
홍승복, 조용섭, 박진성,
이근창, 이진영, 이근우,
이강수, 한철규, 이규진,
지재용, 황인대, 방정혁,
방종철, 김영구, 우영식,
김기석, 김광주, 배정열,
신정욱, 박건형, 홍성석,
송문석, 박영출, 김희규,
정연실, 문운성, 이병호,
황승연

부산 : 정순호, 박영봉, 하태현
이수경, 강경숙, 최승만,
전병기, 정임석, 정상철

대구 : 이 완, 이미경, 박민호,
정기식, 조용장, 진병문,
박수정, 김지홍, 김동완,
우종초

인천 : 채민우, 박정욱, 박기상
김은식, 이은주, 김종현,
김동하, 정찬호, 김석찬,
김태희, 용명철

광주 : 배성식, 송기완, 이성진,
나학주

대전 : 엄광용, 송훈섭

경기 : 박현중, 최연화, 원종철,

선정규, 서효창, 최재현,
황병호, 고진수, 김은경,

김달수, 김기환, 이춘열
강원 : 김현수, 김승무, 박승희
이호섭, 탁기범, 안광수,

김상윤, 김영옥
충남 : 오세원, 박영진, 김준태,
송병무, 원경재

충북 : 채수인, 김영업, 정근화,
백용남, 안병수

경남 : 김영태, 김중상, 목상석,
권희중

경북 : 최우정, 박병욱, 김익성,
박성현, 강정호, 이광열,
이성훈, 황국동, 박아곱

전남 : 서남철, 천병열, 최상국
전북 : 최인호, 박춘식, 최준상,

김영배, 서충식, 박병구,
김민진, 장현욱, 이기형,
김중석, 진승규, 송경송

제주 : 이창화

국방 : 박철희, 조규선, 박광중,
박병진

태권

95년 1~3월

행사안내

▲ 1월 12일~15일 : 제 1 회 이집트 국제 태권도 대회

(이집트, 카이로)

▲ 1월 17일 : '94년도 결산 이사회
(올림픽 파크텔)

▲ 1월 24일 : '95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

▲ 1월 27일~29일 : 제 8 회 “여명의 열흘” 이란학

명기념대회(이란, 이스파한)

▲ 2월 24일~25일 : 경기규칙 강습회(올림픽회관)

▲ 3월 2일~3일 : 상임심판교육(올림픽회관)

▲ 3월 14일~17일 : '95년도 1차 국가대표선발전
(잠실학생체육관)

▲ 3월 28일~30일 : '95년도 최종 국가대표선발전
(잠실학생체육관) 태권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념
'94 KBS배 국제태권도대회

김영삼대통령, 세계화에 성공한 태권도 격려

1994 KBS CUP International Taekwondo Tournament

KBS와 세계태권도연맹이 공동주최한 KBS배 국제태권도대회가 12월 10일과 11일 장충체육관에서 12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영삼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번 대회는 태권도가 지난 9월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IOC 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하고 전통무예로 세계화에 성공한 태권도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회식 모습





▲ 태권도 유단자인 탤런트 이동준(5단), 김혜수(3단)로부터 태권도복을 증정받고 기뻐하는 김영삼대통령과 영부인 손명순 여사.



▶ 80kg 이상급의 김광수가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의 로마노 마시밀리안을 꺾고 우승이 확정된 순간.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

4체급 출전, 모두 금메달의 영광

THE 12TH ASIAN GAMES TAEKWONDO

10월 8일과 9일 히로시마 아끼워드 체육관에서
거행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출전한 4체급
모두 석권함으로써 한국의 종합 2위 달성에
기여하며 국위를 선양했다.

▼한국대표팀 간판스타인 헤비급 김제경선수의 멋진 플레이





▲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회장과 홍종수부회장이 김운용 IOC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한국대표팀을 격려했다.



▲ 플라이급의 진승태 선수는 뛰어난 순발력과 주특기인 내려차기 등으로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권도 한마당 '94

TAEKWONDO HANMADANG '94

국내외 태권도인 한자리에 모여 품새 및 격파 경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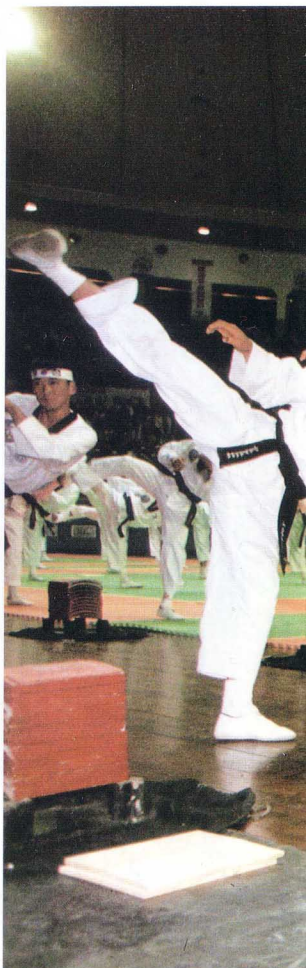
'94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대한태권도협회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태권도 한마당 '94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 1576명의 국내외 태권도인들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어 품새와 격파경연을 펼쳤다.



▲ 어린 꼬마들이 절도있는 태권도 품새를 펼쳐 관중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으며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의정부 세아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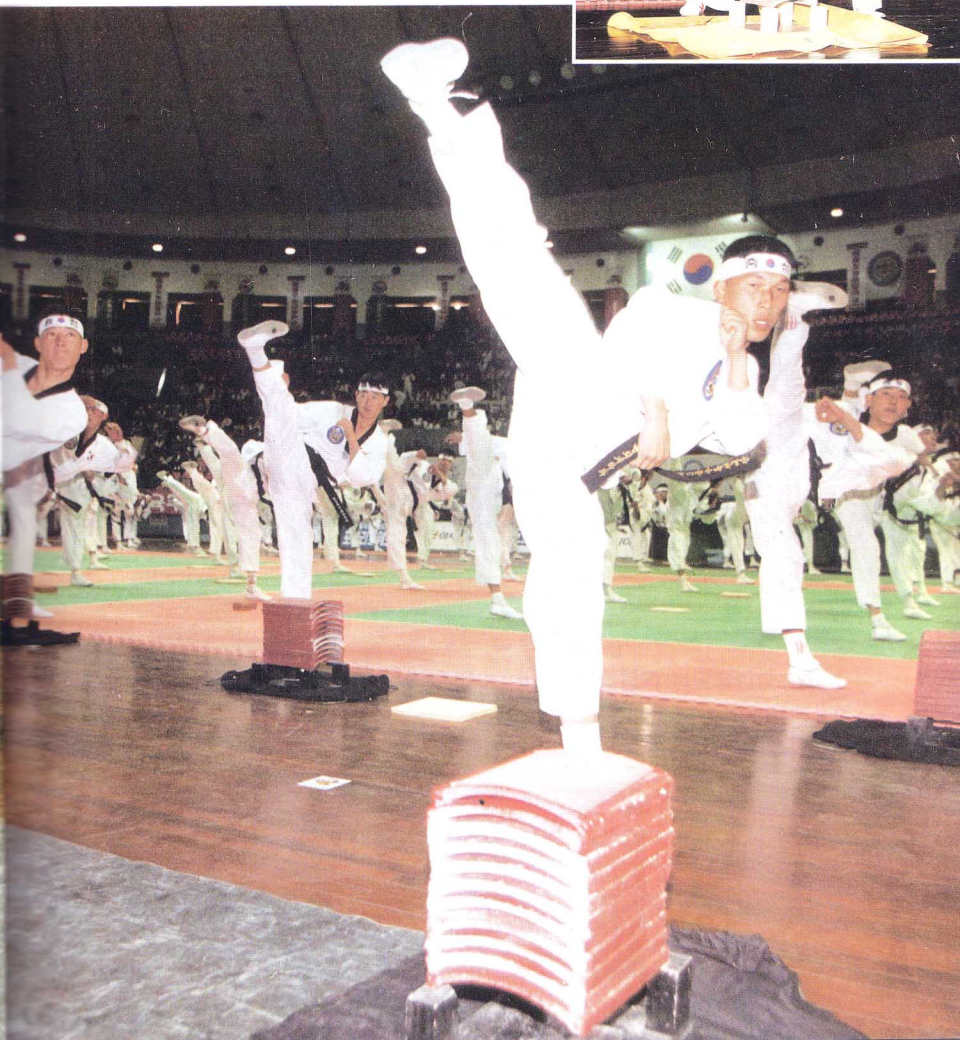


▲ 송판을 발로 가르며 올해 발격파 왕으로 선발된 강신철씨(수원 남창체육관)



▶ 주먹격과 부분에 도전한 호주의 Dieb Khoury가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 개회식 공개행사에서 태권도의 강인한 정신과 위력을 펼친 특전사의 태권도 시범.



제75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시도대표들이 모여 기량을 겨룬 전국체육대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 다목적 체육관에서 고등, 대학, 일반, 여자부 경기가 펼쳐져 시도간 경쟁이 치열했다.



▶ 종합우승의 영광은 서울시 대표팀이 차지했고 대전과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1994년도 전국 최우수선수 선발대회

94년도의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전적이 있는 우수한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기원에서 펼쳐진 전국 남녀우수선수 선발전의 체급별 1, 2위자는 '95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진출자격을 획득했다.



▲ 뛰어난 기량을 보여 94년도 남녀 최우수선수로 선발된 조항미(경희대), 정광채(한체대).

제20회 연맹회장기 전국국민학교 대회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태권도잔치가 11월 2일과 3일 국기원에서 펼쳐졌다.

◀ 여자 어린이들이 힘차게 발을 뻗으며 공격을 하고 있다.